

월간 가든인 9월호

September 2014 Monthly Gardenin

특집
기사

미국 댕크 개수목원 · 식물원을 만나다.

후원과 기부의 정원문화



GARDEN DESIGN

colour in the garden - Blue
Rill & fountain
세계의 친환경적인 색채



GARDENIN HORTICULTURE

정원 속 보이네
다래나무 이야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무늬병
다육식물 재배 준비물
청어



SECRET GARDEN

헤이리 예술인 마을



- 정원사의 알기 IV
- 정원휴식의자
- 나의 생활 방식에 맞는 짝꿍 식물을 찾아보자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Movie, Q&A, Book & Flower Festival, 세계의 추석명절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Buddlejas를 즐기는 법

학생시절 실습시간 직삼하여 3m크기로 자라던 Buddlejas 묘목을 이른 봄 무리한 가지치기로 냉해피해를 입고 향과 나비를 잃어 한동안 허전해하던 마음을 토로한다.

Buddlejas는 이른 봄철 가지치기가 필수적인 묘목이고 민감한 온도의 변화를 점검한 후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는 기쁨은 동일한 정원에 새로운 식물이 정원과 함께 어울리며 그 식물의 특성과 가치를 알아가는 각자의 정원에 알아가고 즐길때 발견할수 있다.

정원사는 식재 후 보존과 관리가 으뜸이며, 늘 고감하고 식물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장마가 끝난뒤 늘어진 가지를 쳐주고 충분한 비료공급을 하면 태양과 함께 진한 색상의 Buddlejas꽃을 만나볼 수 있다.



2014년 여름특가판매

 **포트 6개 - 5만원 특가 판매**
(날개 구매일 경우 개당 만원)



가든조아/ 우리꽃 영농조합

TEL:031 634 7009
www.gardenjoa.com

붓드레아 Buddlejaaceae

Buddleja, or Buddleia / (also historically given as Buddlea) COMMON NAME: Butterfly

나비의 친구, 썩기 꽃 모양 속에 주황색 꽃눈을 갖춘 꽃. 붓드레아를 아시나요?



많은 식물 8월~9월이 절정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썩기 모양의 보라색꽃은 Buddleja davidii(또는 붓드레아 davidii) 대량 생산, 주황색 눈 꽃은 꿀 향기와 꿀의 가득 차 있으며, 영국에서는 나비에 대한 최고의 식물. 현재는 22 원 시 종족을 유지하며, 모든 정원 식물에서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위치에 세워 둔다면 많은 친구들과의 소통을 정원공간에서 이룬다. 어떤 붓드레아가 최고의 품종인지는 개인의 정원에서 어떤 모습을 풍기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Buddlejas는 높이가 3m정도자라며, 성장하여서는 약5미터 폭까지 급성장하나, 이른 봄 3월경이면 뿌리 가까이까지 전체를 가지치기를 하여 주변 새순이 자라 여름철 더많은 꽃과 짙은 색을 만날수 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가치를 제거하면 더 많은 꽃이 계속 피며, 관목과 같이 작은 포트 하나가 즐거움과 나비 친구까지 보여주기 어린 동심으로 가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다. 정원의 식물 하나로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을 즐기며 썩기 모양의 꽃 속에 꽃을 바라보는 재미는 부드레아를 가꾸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이다. 정원이 작으면 나무 한그루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붓드레아를 권하고 싶다.

나비뿐 아니라 향도 짙어 정원에서는 필수 식물인 Buddlejas는 특히 얇은 실버 그린톤을 띠며 라벤더 색의 꽃 속에 옅은색 눈을 띄고 있으며 추위에도 강하고 큰 포트이든 정원베드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Buddlejas는 어디에서 성장하나? Buddlejas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햇볕공급이 위치에서 성장이 활발하며 물이 고이는 토양에서는 성장하기 어렵다.

Buddlejas는 알칼리성 토양에 강하며 산성 토양에는 석회를 추가하면 된다. 그외의 토양 조건에서도 성장활동이 좋은 식물이다.



Contents



GARDEN DESIGN

- 6 정원의 의자
- 12 colour in the garden - Blue
- 18 Rill & fountain
- 24 세계의 친환경적인 색채
- 32 자연의 향기와 책이 함께하는 그린문화공간 네이버라이브러리



SECRET GARDEN

- 38 숲사람 I
- 44 이복임정원
- 48 청어
- 52 미국의 정원
- 60 헤이리 예술인 마을 화가의 그린 게릴라 정원 박요원



GARDENIN HORTICULTURE

- 66 정원 속 보이네
- 70 정원의 일기
- 74 나의 생활방식에 맞는 짝꿍식물을 찾아라
- 78 다래나무 이야기
- 80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한 꿈을 키우는 이야기정원
- 82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잠무늬병
- 86 다육식물 재배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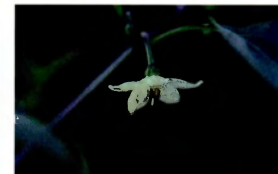
GARDEIN KITCHEN

- 88 안완식박사의 도시농업 - 고추
- 94 정원사의 일기 - 채소정원



GARDEIN INFORMATION

- 98 Q&A
- 102 산청한방약초축제
- 106 BOOK & FESTIVAL
- 108 GARDEN & MOVIE
- 110 세계속의 추석명절



정원의 의자

벤치, 선베드, 해먹, 그네, 아버킷
Bench, Sunbed, Hammock, Arbor Seat

“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인 어린 시절에는
나도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라일락 향기에 취해
따뜻한 봄볕을 쬔채 창가에 기대 앉아
삶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곤 했었고
인생이 항상 꽃피는 봄과 같았으면 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또는
현실을 잠깐 벗어나야 할 때면 조연자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장
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눈을 감고 내가 가는 그 곳은 세상의
시름과 슬픔이 없는 천국과 같은 정원이다. 꽃으로 가득 찬 정
원에 놓인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은 책을 읽다 마사로운 햇빛을 느끼며 벤치에 기대 잠깐
졸고 있다. 벤치 한 쪽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정원은 꽃
향기가 가득 차 있다. 시간은 멈추어 있다.

손관화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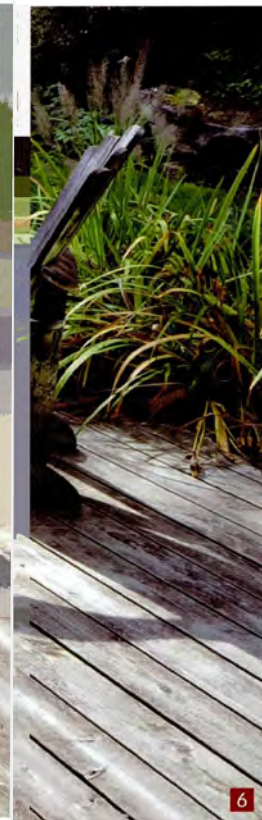
천안연암대학 화훼장식계열
(플로리스트리 전공+가드닝 전공) <http://sohn.yonam.ac.kr>



정원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나만의 꿈은 아니다. 빈 공간에 작은
정원이라도 만들면 잠깐 걸터앉는 등받이 없는 의자만으로도 기쁘다. 그
러다 정원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게 되면 등받이도 있고 다리를 올려 앉으
로도 기댈 수 있는 긴 벤치가 편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다 보면 드러누워
하늘을 볼 수 있는 선베드가 제일 좋다는 것을 느낀다. 외국의 이곳 저곳
정원을 가보면 곳곳에 선베드를 배치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는 개인 정원 외 공공정원에 선베드를 배치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그런데
작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많지는 않지만 선베드를 배치하여 박람회
를 둘러보는 사람들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을 보았다.

1. 독일 정원 의자 겸용 선베드
2. 영국 정원의자 Adirondack chair
3. 영국 벤치
4. 영국 Lullyens chair
5. 영국 선베드





2년 전, 평택 AK Plaza 옥상에서 컨테이너 가든 전시를 하면서 컨테이너 옆에 선베드를 여러 개 배치하였다. 낮에는 물론 해질 무렵과 저녁에 꽃 옆에 배치된 선베드는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선베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먹(hammock)은 나무 사이에 걸어야 하는데 작은 정원에 매달 수 있는 나무를 찾기 힘들어 저렴한 가격에도 많이 이용되는 편은 아니다. 해먹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물까지 포함된 해먹이 있으니 선베드를 구입할지 해먹을 구입할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정원의 목재 의자나 벤치는 방부목으로 제작되지 않으면 1년만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 8년전 즈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인용 정원의자를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에 구입해 정원에 배치하였다. 그랬는데 1년만에 썩어버려 왜 가격이 저렴한지 알게 되었다. 티크로 만든 의자나 벤치는 잘 썩지 않아 오래 가기 때문에 좋은데 너무 비싸다. 8년 전쯤에는 티크 벤치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보았던 바나나모양의 티크 벤치를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그 때는 한 개 120만원에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국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누가 벤치 한 개를 100만원에 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 6. 영국 정원의자
- 7. 영국 아바실
- 8. 영국 정원의자
- 9. 영국 정원의자



10

“

정원에서 벤치보다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네가 있다.

”

그래서 저렴한 목재라면 페인트를 칠해 썩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페인트도 시간이 지나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1~2년에 한번씩은 다시 칠해줘야 한다. 그래서 목재가 불편하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엮어 바구니처럼 짠 재질로 만든 가벼운 의자도 좋다.

정원에서 벤치보다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앉는 그네가 있다. 학교의 실습정원에 그네를 배치해 두었는데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툭 하면 망가진다. 또 목재라 무거운 편인데 한번은 태풍에 넘어가버려 햇빛가리게 지붕이 부서졌다. 방부목으로 만든 그네도 페인트칠을 해 썩는 것을 막고 정원에 어울리는 색으로 바꾸어주면 더 효과적이다.

앉을 자리와 텃밭식물을 올릴 수 있는 지주와 가벼운 지붕을 함께 만든 아버실(arbor seat)은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는데 국내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와



11



12

- 10. 영국 정원 의자
- 11. 프랑스 정원 의자
- 12. 오스트리아 해먹
- 13. 영국 해먹
- 14. 오스트리아 그네
- 15. 오스트리아 선베드
- 16. 프랑스 작은 정원 의자



13



14



16



15

결합된 모양이 많은데 영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인터 넷으로 검색해보면 아버실 또는 아버벤치(arbor bench)라는 이름으로 각각각색의 모양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아직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삶은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 보내고 싶다. 이왕이면 정원의 선베드에서 장미향기를 맡으며 생을 마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돌아가 이번 생은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다고 삶의 소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COLOUR IN THE GARDEN

BLUE

파란색은 늘 우리에게 친근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평온하게 들어오는 파란하늘이 그렇고, 온갖 생명을 품고 유유히 흐르는 강과 바다가 그렇다.

파란 하늘과 강과 바다는 늘 파란색으로 색을 입히지만 그 깊이에 따라 혹은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 열고 질음의 차이가 있다. 너무 짙으면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다가오지만, 옅은 파란색의 경우는 맑으면서도 신비로운 느낌마저 든다.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전체의 색채중에 반이 파란색인 이유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파란색, 늘 파랑지만 늘 똑같지 않은 파란색의 매력을 정원으로 끌고 들어와 하늘과 정원사이에서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연출해 보자.



Hatchland Park

파란색은 신뢰와 책임감의 색이다. 파란색은 색상환에서 보면 노란색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밝은 이미지 보다는 어두운 이미지가 더 강하다. 또한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서 파란색의 꽃을 이용하고 심을 때는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느 만큼 심을지도 중요한데, 파란색을 눈에 띄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양을 군락해서 심는게 좋고, 포인트도 넣고 싶을 때는 양은 적게 하되, 진한 색의 파란색의 꽃을 골라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



RHS Rosemoor

오도
플문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Vann Garden



Lake (Area Savill Garden)



Iris Joyce (reticulata)

파란색은 시원한 느낌을 준다

파란색의 꽃은 여름 화단에 안정맞춤이다. 덥고 뜨거운 여름 날씨에 지쳐있을 때 정원에서 파란색의 델피늄이나 물망초 등의 꽃을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계곡물이 흐르는 암석원이나 습지의 연못옆에 물망초를 심으면 시원함이 두배로 증가한다. 특히 여름에는 노란색 꽃이 많이 피는데 노란색 꽃 옆에 같이 심으면 보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서로의 색이 운에 잘 떠면서도, 서로를 잘 어울리게 한다.



Echinops sp

Iris cvs

Muscari armeniacum (Wisley Garden)



파란색의 깊이(열고 짙음)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다
파란색은 옅은 파랑에서 부터 짙은 파랑에 이르기까지 색상이 다양하다. 옅은 파랑의 경우 스카이 블루하고도 부르며 희망이나 적극적인 차가운 이미지가 있고, 짙은 파랑의 마린블루에는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이 든다. 이 두가지의 느낌을 각각 살려서 난색계의 오렌지와 레드를 섞어 다이내믹하면서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해 보자.



Ceanothus arboreus



Solanum crispum Glasnevin



Hyacinthus orientalis Blue Star



Veronica prostrata



Muscari latifolium



Solanum crispum Glasnevin

Eden Project

1. 파랑과 핑크의 어울림

파랑과 핑크가 만나면 로맨틱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가 떠오른다. 파랑에서 빨강으로 넘어가는 사이이에 있는 핑크는 그 어느 꽃과도 잘 어울린다. 연한 파랑에서 진한 파랑으로 이어지는 히아신스속에 핑크색의 프리플러가 자연스러운 배열로 피어있다. 프리플러의 꽃잎 가운데 노란색 포인트가 파란색 히아신스를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



Harlow Car



2. 파랑과 노랑의 어울림

스카이블루의 아가판서스와 큼지막한 백합의 밝은 노란색 그리고 배경으로 뒷받침해주는 루드베키아가 수채화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부드럽다. 파랑과 노랑은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 위치에 있어서 서로 눈에 잘 띠도록 하는 매력이 있다. 가능하다면 꽃을 심을 때 파랑과 노랑 꽃의 양이 반씩 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Rosemoor



3. 파랑과 보라의 어울림

파랑과 보라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아함을 연출하는 보라색의 클레마티스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스카이블루의 델피늄이 서로의 매력을 한껏 연출하고 있다. 이 두 꽃의 조합은 칼리뿐만 아니라 둥글고 뾰족한 모양의 개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둥글둥글한 클레마티스가 우뚝 솟아오르는 델피늄을 적절하게 잡아주고 있다.

4. 파랑과 오렌지의 어울림

보라색에 가까운 파란색의 라스페가 긴 화단 전체의 배경색이 되면서, 그 앞으로 오렌지 색의 크로키스미아가 주렁주렁 늘어지고 있다. 색상환에서 노란색 가까이에 위치한 오렌지색은 강력하면서도 샤프한 이미지가 있다. 여름 화단에 딱 어울리는 조합이다.

Great Dixter



Hampton Court

6. 파랑과 파스텔칼러의 어울림

파랑과 보라, 핑크, 빨강, 흰색의 어울림이 상쾌하면서도 우아하다. 아네모네 꽃이 주는 고풍스러움이 우아함을 더해주는 것 같다. 얇고 하늘하늘한 꽃잎이 아네모네가 파랑꽃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각각의 칼러의 꽃의 양은 비슷한 비율이 적합하다.



Holegarden

7. 파랑과 흰색의 어울림

파랑과 조화시켜서 가장 화사함을 연출하는 것이 흰색이다. 파랑과 흰색은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봄 화단의 매력의 화사함과 아름다움도 함께 있다. 펜지의 파란 물결 위에 흰색의 튤립 꽃잎이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멀리 보이는 핑크색의 꽃들이 화사함을 더해준다.



Palm house in Pond Kew G.

Rill & fountain

수로정원과 분수정원

시간이 흐르면서,
물은 정원 속 많은 영감을 불어오며,
정원사에게는 작은 물줄기로
생명을 창조하는 여름정원

중세시대의 수로정원을 방문하던 중 나의 머리 속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시절 만난 포석정이 기억나며, 우리의 문화인데 라는 의문이 머리에 스쳐갔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늘 앞서가는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사고의 우수성을 경탄하며, 경주의 사적호 포석정이 9세기경 한강왕대에 화강석 석조 구조물로 만든 22미터의 굴곡진 수로의 물은 주변의 남산에서 흐르는 물이 돌 거북의 입을 통하여 물이 흐르도록 유상곡수언의 흔적을 엿보는 한국적 ㄱ(수로) 정원 포석정은 전복 껍질을 닮았다고 함. 포석정의 정확한 문헌은 알아 보기 힘들다. 하지만 장자의 이야기처럼 물줄기를 정원에 도입하여 전복모양의 수로를 통하여 물 소리와 물 흐름의 빛깔을 정원에 도입한 선조들의 예지는 분명 앞선 정원문화라 소개하고 싶다.

장자는 "무릇 모양, 형상, 소리, 빛깔을 지닌 것은 모두 물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물이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은 감각기관뿐 아니라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써도 논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 의식, 언어의 대상이 있는 물은 형체가 있고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물은 유형(有形)하고, 유명(有名)하다.

물(物)은 유(有)이다. 사람이 흐르는 물에 제 모습을 비춰 볼 수 없고, 고요한 물에서 만 비춰 볼 수 있다. 고요함만이 고요함을 찾는 못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며 정원 속 물줄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무더위 속 모두에게 기대한다.



서양의 정원에서는 수로정원과
둥글둥글 물줄기를 올리는 화수분의 정원은
이제 대, 중, 소의 규모가 다를 뿐
정원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으며
정원테마를 이끌기도 하며, 기후변화로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뿐 아니라
정원 속 소재로 다양한 식물도 함께하여,
주변의 공기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간단한 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펌프의 구매와 각개인의 정원규모에 따라 약간의 아이디어만 정리한다면 누구든 정원의 한 부분에 물줄기와 물의 소리와 물의 색을 연출하는 한 줄기의 분수정원의 연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실내에서의 수경정원은 작은 장소로도 가능하며 식물의 식재도 다양하며 천연가스와 공기정화의 효과까지도 있어 생활공간에 실질적인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장점이 있다. 자연과 자연의 소리와 연중무휴로 힐링 공간도 만드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실내식물의 추천으로는 호야, 무늬산호수, 산호수, 스파트필름, 홍콩야자, 행운목, 스킨, 아이비, 워터코인, 싱고늄, 천남궁, 아이비등등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커다란 포트는 식물식재 이용만 아닌 화수분의 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각자의 정원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고급종인 휴케라의 연출로도 완벽한 여름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

정원을 걷다 발을 멈추게 하는 곳, 자연 속에 또 하나의 자연의 소리가 리듬으로 우리를 머물게 한다.

수생식물은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물을 깨끗이 만들어주며, 강이나 연못 가장자리의 흩어 물에 쓸려 무너지는 것도 방지하며, 또한 잡자리 같은 곤충들이 즐겁게 놀고, 알을 낳는 곳이며 새들에게 역시 먹을 것을 제공하며 숨을 곳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생식물은 수중의 영양 염류(물속의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를 제거해 수질을 정화하고, 어류와 동물성 플랑크톤 등 각종 수생 생물의 산란 및 서식공간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오리 경안천 상류에 이 인공 수초섬을 만들어 띄웠는데 그 규모는 가로 41.5m, 세로 64.8m의 사각형 부상구조물로 갈대, 줄, 애기부들, 달뿌리풀 등의 수생식물이 식재 되었다. 인공 수초섬이 특히 물을 켜게 만드는 주범인 질소, 인 등 부영양화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질정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즉, 수생식물은 물속의 질소, 인 등을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자연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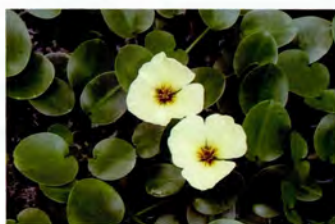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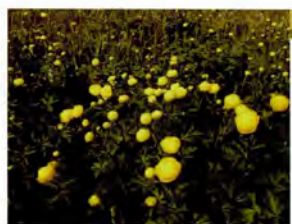


수경식물도 토양이 필요하며 토양은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



수생식물이란?

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수생식물은 자라는 곳이나 그 습성에 따라 구분하며, 수생식물이 사는 데는 물의 깊이와 관계가 있다. 습지의 가장자리에는 정수식물(추수식물)이 살고, 물이 깊어질수록 부엽식물, 부생식물(부유식물), 침수식물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생식물은 총 38과 160여종으로 그 뿌리와 생장점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는데,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고착성 수생식물과 물속에 뿌리를 내리는 부생성(부유성) 수생식물(개구리밥, 잠개구리밥, 부레옥잠)등이 있고 또 고착성 수생식물은 마나리나 애기부들처럼 식물체의 일부분만 물 속에 잠긴 정수식물(추수식물), 식물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침수식물(검정말, 붕어마름등)과 물위에 잎이 뜨는 부엽식물(수련, 연꽃)로 나뉜다.



Gardening TIP 가드닝 팁

수생식물의 종류를 알아보자

정수식물[추수식물 抽水植物]

습지의 가장자리에 살며,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와 잎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물 위로 뻗어 있는 식물이다. 알은 물기에서 나는 수생식물의 한 모습으로 연꽃·갈대·부들·줄·큰고랭이 등이 있다. 땅속줄기에 통기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근계(根系)의 호흡을 돕는다. 정수식물로 이루어진 초원을 정수초원이라 한다.

* 예: 참물부추, 네가래, 수염마름, 물옥잠, 연꽃, 줄, 애기부들, 갈대, 택사, 모고랭이, 흑삼, 노랑꽃참모



노랑꽃참모



부들

침수식물[沈水植物, submerged plant]

식물체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고착,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수심 3m 이내의 수중에서 사는 대형 수중식물이다. 해수 중에서 생육하는 대형, 툴 등의 해조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담수생식물을 말한다. 물수세미, 물질경이, 검정말, 붕어마름, 말줄, 나사말 등이 이에 속한다. 잎은 길쭉하거나 선형으로 세분된 것이 많다. 잎이나 줄기의 기계조직, 큐티클층, 물관 등의 발달이 나쁘고 연질(軟質)이다. 주로 표면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유로 뿌리발달이 나쁘고 통말, 벌레먹이말, 붕어마름 등과 같이 뿌리가 없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꽃은 수면 위에서 개화·결실한다.

* 붕어마름과 같이 꽃이 물속에서 피고, 물속에서 수정하는 것도 있다. 또, 붕어마름은 식물체가 절단되기 쉽고 꺾어진 조각이 그대로 생장해서 영양번식을 한다.



물수세미



붕어마름

부엽식물[浮葉植物, floating leaved plant]

뿌리는 물 밑바닥에 고착하고 잎이 물 위에 뜨는 식물. 수심 1~1.5m의 강가나 물이 느리게 흐르는 곳에 산다. 잎에는 부엽(浮葉)과 수중엽이 있다. 부엽은 표면에만 기공이 있고 잎 면은 납질로 덮여 있어서 젖지 않는다. 수중엽은 얇은 질이거나 가늘게 갈라져 있다. 부엽의 잎자루는 가늘고 길며, 수심에 따라 매우 길게 번는다. 연, 수련, 왜개연, 어리연꽃, 가시연, 물양귀비, 가래, 마름잎 등이 이에 속한다 (물속엽(waterleaf)=수중엽,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생활하기 적합하도록 뿌리처럼 발달한 잎).



수련



물양귀비

부생식물(부유식물)

물 위나 물속에서 떠다니며 생활하는 식물을 통틀어 말한다. 줄기나 잎이 수면 아래에 있고 뿌리가 없거나 빈약하고, 통발, 벌레먹이말, 개구리밥, 물옥잠, 자라풀, 생이가래, 부레옥잠, 자라풀등이 있다.



물옥잠



자라풀



원색계열 바탕에 녹색 계열의 액자와 그림으로 장식된 벽면 디자인

세계의 친환경적인 색채

인간의 시야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중 가장 먼저 식별하는 미의 요소는 색상이라고 말한다. 색상을 인식한 후 형태를 감지하게 되고 다음에는 가까이 물체를 대하면서 재질을 감지하게 된다고 한다. 물체들의 재질감이나 색상, 형태를 또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환경이 색채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흰색의 벽면과 갈색의 지붕으로 단정된 건축물 색채환경



갈색배탕에 녹색으로 표기된 다말리아 정원의 표지판

녹색 숲환경을 배경으로 조화된 녹색 간판에 흰색으로 표기된 싱가포르의 허브정원 안내와 버스정류장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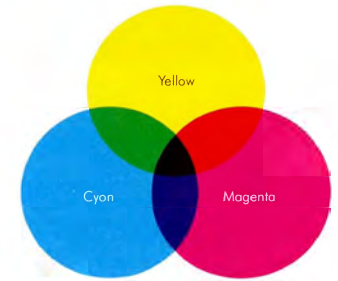


무채색으로 표기된 상호 간판글씨



원색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해남성거리의 색채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색채는 원색을 비롯하여 빛의 삼원색과 환경 친화적인 색채가 있으며 삼원색은 빨강과 노랑, 파랑색으로 가장 눈에 잘 식별되는 색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색채학자들은 이와 같은 색채들은 미개한 국가나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나 학력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채,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의 척도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나리타공항에 주변환경에 설치된 흰색 칸테이너에 식재된 아스플레니움



1996년 한 여름에 일본의 교토 대학의 화훼원예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꽃시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양재동 꽃시장 안에 화환만 꽃을 보게 되었는데 교토 대학 교수가 화환을 보고 막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다. 화환의 꽃색 배치가 원색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스웠던 모양이었다. 나는 곧바로 웃는 모습이 비하하는 웃음으로 보여 청색을 하며 너희 나라는 언제부터 원색을 배제하기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자기가 웃고도 겹언쩍다는 듯이 불과 4~5년 전부터인 1992년부터라고 대답했다. 일본도 색채에 대해서는 그리 일찍 깨닫지는 않은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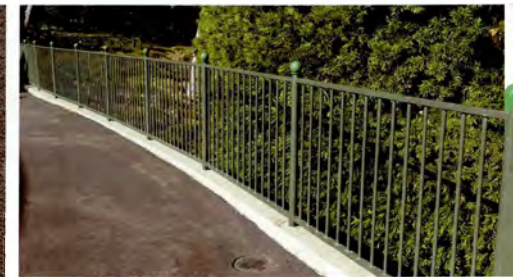
각국의 색채 사용의 예



우편함과 문패, 집번지의 색이 흰색 벽면에 흰색판의 문패에 검은색 글씨로 표기된 색채환경(독일)(1)



우편함과 문패, 집번지의 색이 흰색 벽면에 흰색판의 문패에 검은색 글씨로 표기된 색채환경(독일)(2)



독일의 한 조그마한 도시에 도로가에 펜스를 녹색으로 채색한 색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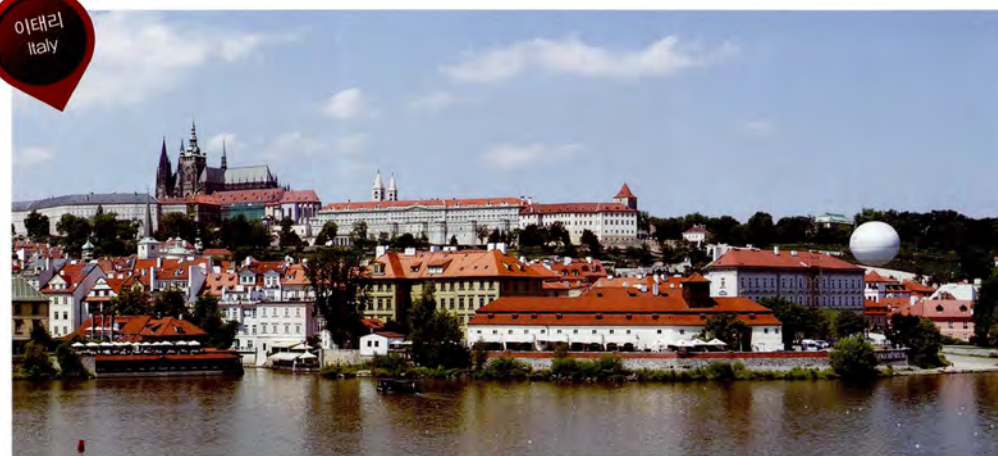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흰색벽면과 갈색 지붕과 회색지붕, 벽면과 지붕의 황금비, 청문의 황금비는 그림같은 건축환경을 조성한 색채 환경



도로가에 설치된 펜스 기둥색을 녹색으로 채색한 독일의 도로 분리대

이태리
Italy



흰색의 벽면과 갈색의 지붕으로 된 이태리의 건축색채환경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구상에서 국토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치라면 스위스나 독일, 아일랜드를 손꼽을 수 있고 이들 나라들은 모든 것이 환경 친화적인 색채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보대나 고압선의 철재점탑, 간판, 버스 정류장 등에서 모든 시설물이 환경 친화적인 색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색채라는 것은 자연에 잘 조화될 수 있는 색채로 녹색계열과 갈색계열, 무채색계열을 말한다. 이 나라들의 모든 환경의 색상들이 자연 친환경적인 색채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색채로만으로 환경을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녹색과 흰색, 검은색과 회색, 갈색으로 디자인된 네덜란드의 민속촌의 건축물 색채환경

네덜란드
Netherlands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 푸리히의 수목을 보호하기위해 벤치로 장식한 녹색 색채환경

스위스를 보면 녹색과 갈색, 흰색과 회색, 검은색들로만 환경이 되어 있는 아일랜드는 꽃색깔까지도 흰색 중에 붉은 색을 피하며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붉은 장미를 심지 않는다. 이유로는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USA



한번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45분쯤 자가용으로 달려가면 메릴랜드주의 후레드릭이라는 도시에서 자가용 거리로 15분쯤 되는 외곽에 5에이커 존에서 살게 되었다. 미국은 주거지역이 쿼테이커존(300평할당지역), 헛프에이커존(600평할당지역), 원에이커존(1200평할당지역), 2에이커존(2400평할당지역), 5에이커존(6000평할당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분된 대로 집을 한 채씩 짓고 살게 되어있다. 미국에서도 반상회와 같은 것이 존재했다. 그 회의 주제가 화단에 꽃을 심는데 꽃

색을 어떤 색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고 결론은 붉은 장미나 붉은 튜립과 같은 색은 심지 않기로 한 회의였다. 선진국 사람들은 꽃의 색에 관해서, 환경색채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꽃색까지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결정을 어길 경우 어긴 사항을 신고당하게 되고 1차와 2차 까지와서 경고장을 주고가며 3차에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미국의 주택가에 설치된 녹색의 우편함 색채환경



미국의 주택가에 설치된 갈색계열로 채색된 우편함의 색채환경



미국의 주택가에 설치된 흰색의 우편함 색채환경



자연친환경적인 색채로 디자인된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과 휴식동



캘리포니아의 펄러스버드에 있는 한주택가에 설치된 녹색으로 채색된 전화기박스의 색채환경



캘리포니아의 펄러스버드 도로 중앙에 녹색으로 설치된 전기박스의 색채환경



캘리포니아 상가의 친환경적인 건물색채와 간판글씨 색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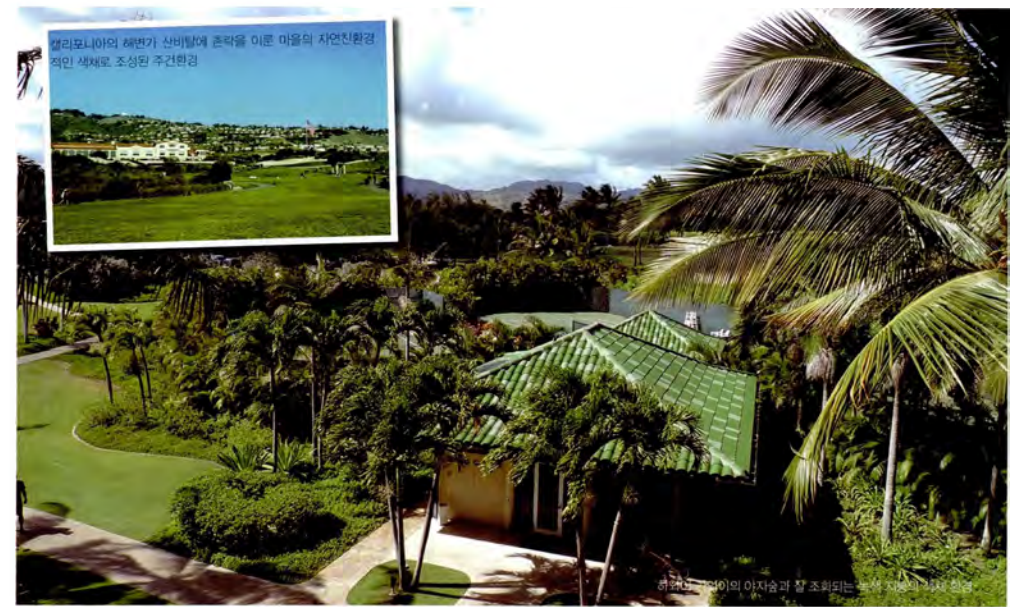
친환경적인 색채로 조성된 캘리포니아의 흰색 벽면과 갈색의 지붕의 주택 색채환경



캘리포니아의 상가 진입로 길가에 반짝으로 흰색 컨테이너에 식재된 초화들의 색채환경



조명등의 기둥을 녹색으로 채색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 샌디에고 공원의 색채환경



전세계적으로 맥도날드 간판은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쓰고 맥도날드 로고를 노란 색으로 M자를 쓰게 되어 흰색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색이 런던의 시가에 색채조화가 맞지 않으니 간판 색을 고치라고 했다.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대답하기를 남의 회사 로고를 바꾸라는 무식한 행위라고 하자 고치기 싫다면 맥도날드 안 먹어도 좋으니 철수 하라고 했고 곧바로 런던 시내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색상으로 시정되었다는 해프닝이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요청하여 시정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자연 친환경적인 색채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흰색이 너무 많다. 간판을 비롯하여 건축물 등이 혼란한 거리를 이루고 있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만 해도 이러한 혼란한 도시의 환경은 사라질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친환경적 디자인, 제품



붉은색 대신에 금연표시를 하기 위해 흰색판에 검은색과 녹색으로 표기한 자연친환경적인 색채환경의 경고 표지판(미국)



사업적으로 성공적인 자연친환경적인 녹색계열의 스타벅스의 간판글씨 색채환경

스타벅스는 왜 사업적으로 성공적 이었는가 이유는 디자인이 그들이 말하기를 자연친환경적인 색채가 신선감과 친근감을 주는데서 라고 말한다



자연친환경적인 색채로 디자인된 손 세제 상품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친환경적인 색채로 디자인된 상품은 친근감을 갖게 되는 동시에 구매욕도 생기게 한다.

간판을 생각하다. 우리나라의 간판문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여러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착되어있는 간판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우리나라의 간판은 도시의 미관과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주 자신의 업소 알리기형 간판이 대부분이다. 간판의 크기가 대형화 되고 화려해짐으로써 고객들의 시선을 자극하고 있으며, 간판이 대형화 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간판의 색채 부조화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판은 그 거리의 얼굴이다. 3층 건물을 빼곡히 채워놓은 간판들, 신도시 상업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건물에 가득 채워져 있는 형형색색의 간판들을 보면 건물에 간판이 채워진 것인지 간판속에 건물이 있는 것인지 새삼 궁금해지기도 한다. 간판의 크기와 광고효과가 반드시 정비례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지역의 테마에 맞춘, 도시경관과 함께 녹아든 간판이야말로 진정된 간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원색의 배경과 갈색의 지붕으로 된 이태리의 건축색채환경

Gardening TIP 가드닝 팁

나무인 척하는 대나무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대‘나무’니까.

하지만 속지 말아야합니다. 나무인척 하는 대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무와 풀의 큰 차이점은 부피생장을 하느냐,

길이생장을 하느냐 차이입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 본적 있으시죠?

줄기의 겉껍질과 목질부 사이에 형성층이 있어 부피생장 하는데 바깥에는 체관이,

안쪽에는 물관이 새로 만들어 지면서 나무는 점점 굵어지게 되며 이로써 나이테가 생기게 됩니다.

풀은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부피생장을 하지 못하고 위로만 키가 큰 길이생장만 합니다.

어릴 때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무는 쌍떡잎식물,

풀은 외떡잎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를 잘랐을 때 나이테가 없고

점점 굵어지지 않는 특징을 생각해보았을 때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나무를 나무라고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든인 박세경 기자

[Bambusoideae, 一類]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벼)과 대나무아과에 속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식물의 총칭.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벼과, Poaceae) 대나무아과(Bambusoid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의 총칭으로 키가 큰 왕대속만을 대나무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 한자로는 죽(竹)이라고 한다. 대나무가 북방으로 옮겨질 때 명칭도 중국 남방음이 따라 들어왔다. '竹'의 남방 고음이 '텍(tek)'인데 끝소리 'ㄱ'음이 약하게 되어 한국에서는 '대'로 변천하였고 일본에서는 두 음절로 나누어져 '다케'로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나 주로 열대 지방에서 자라며 특히 아시아의 계절풍 지대에 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과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키가 큰 왕대속의 경우에는 높이 30m, 지름 30cm 까지 자라기도 한다. 줄기가 곳곳과 둥글며 속이 비어 있다. 생장 방법은 땅 속 줄기는 옆으로 뻗어 마디에서 뿌리와 순을 틔움으로써 자연 번식한다. 잎은 좁고 길다. 습기가 많은 땅을 좋아하고 생장이 빠르다. 또한 좀처럼 꽃이 피지 않지만, 필 경우에는 전 대나무밭에서 일제히 핀다. 대나무의 꽃은 대나무의 번식과는 무관한 돌연변이의 일종으로 개화병(開花病) 혹은 자연고(自然故)라고도 한다. 개화 시기는 3년, 4년, 30년, 60년, 120년 등으로 다양하며, 대나무 발 천체에서 일제히 꽃이 핀 후 모두 고사한다. 대나무는 건축재·가구재·납실타·식물 지지대를 비롯하여 바꾸나 등 축제공품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한다. 어린 순은 나물로 요리하여 먹는다.



Green Factory(그린 팩토리)라고 쓰여 있는 네이버 본사 사옥에 들어서면 높은 복층 로비가 보이는데 바로 왼쪽이 잡지류를 전시해 놓은 북카페이고 오른쪽이 예술과 디자인 도서들을 구비해 놓은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 2층에는 다양한 백과사전들이 전시되어 있는 사전존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라이브러리는 네이버 사옥의 복층 로비를 공공도서관으로 개방한 공간이다. 무료로 개방되는 도서관 외에 서점과 북카페를 겸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용자가 편하도록 동선을 넓게 배치하고 책장 위와 책장 사이 공간들을 푸른 식물로 조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마치 식물원과 도서관이 만난 듯한 이색적인 도심 속 그린문화공간의 매력을 소개한다. *story & photo 김 지 태*





숲에 둘러싸인 방대한 디자인 서적

디자인존으로 불리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높게 늘어선 책장들 사이와 모퉁이는 물론 책장 위에도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마치 숲 속에 한적하게 마련된 서가같은 느낌이다. 네이버 SPX디자인팀 김예원 디자이너는 이 공간을 구상할 때 'Book Forest' 컨셉을 따랐다고 한다. "이곳은 다양한 디자인 관련 서적들이 있는 곳인데 디자인할 때 UX(User Experience : 사용자경험)적 접근에 관해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숲과 함께 하는 책'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즉 사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골라서 책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서가 사이를 숲처럼 거닐면서 숲에서 길을 잃듯 다양한 전문서적들이 세계에 빠지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예요."

공간을 북 포레스트로 컨셉을 잡으면서 미적인 부분은 물론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됐다. 건물이 북층 구조라 특히 겨울철에 공기순환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서가들에 식물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공기가 건조해지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식물들의 산소배출로 자연스럽게 뛰어난 공기정화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2층에 있는 백과사전존에도 화분에 다양한 식물들을 배치해 놓아서 사전을 보다가 눈만 돌리던 상쾌한 식물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쇼핑하듯 잡지를 훑어보는 매거진존

디자인존의 라이브러리가 책의 숲이라면 맞은편에 위치한 매거진존은 '잡지와 함께하는 거리' 개념으로 조성됐다. 김예원 디자이너는 이 컨셉을 'Magazine Street'라고 말한다.

"다양한 잡지들이 전시된 쇼윈도가 있고, 책을 마실 수 있는 카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벤치와 테이블이 함께 하는 장소를 구상했는데 그보다보니 자연스럽게 곳곳에 나무와 정원이 들어서게 됐어요. 디자인존과 달리 이 곳은 자유롭게 도넛돌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커서가 보이도록 진열된 매거진 쇼윈도를 거닐면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책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실내의 작은 공원 역할을 하는 매거진존에서는 어느 곳에 앉아 있건 시선 안에 식물들이 들어오도록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잡지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네이버 라이브러리 이용 팁

네이버 라이브러리는 지난해 NHN과 네이버가 분리된 후 네이버 사옥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조성됐다. 로비를 네이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공공에게 개방하는 문화공간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용자들이 도심 건물 안에서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컨셉으로 디자인이 설계됐다.

1층 디자인존에는 디자인 장서 17,000여권과 IT관련 도서 7000여권이 구비되어 있고 매거진존에는 국내외잡지 250여종이 전시되어 있다. 2층 백과사전존에는 전세계 전문백과사전 1,300여권이 전시되어 있어 깊이 있는 지식의 탐독이 가능하다.

네이버 라이브러리는 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공간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카페, 고령자들과 함께 하는 라이브러리, 장애인들의 웹 사용 환경을 돕는 웹 접근성 부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며 매거진존은 자유입장. 디자인존과 백과사전존은 신분증과 가방 등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입장하면 된다.



Welcome Garden joa



입구에서 놀라다

경기도 이천 가든조아 매장이 있는 단지에 들어서서 순간 한 여름의 더위보다 먼저 온실의 너울거리는 초사위와 알록달록 화려한 꽃잎들이 반겨주었다.

고양, 일산의 화훼단지의 모습만을 추구장상 보왔던 나에게 가든조아와 동장의 모습은 그저 놀라움의 귀일 뿐이었다. TV나 책에서나 보던 대단위 농업단지라는 단어가 내 머리를 휘~하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가든조아 입구를 보니 역시 외국의 Farm과 같은(우리나라 식으로 축사, 농장이 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예뻐서 Farm이라 써넣었다) 입구에 하초와 벚꽃들이 판매했던 화분에 꽃아 놓은 것이 아닌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있었다.



아기자기 오밀조밀

눈에 바로 보였던 것은 화분과 아기자기한 소품들. 베란다에, 작은 텃밭에 놓으면 오밀조밀 귀여운 것같은 화분들과 초보용 왕초보용을 위한 가든링 용품들.

그리고, 정원테이블 야외정원에 나온듯 기웃 기웃 거려서 앉아서 보고 만져도 보고 이런 것이 예쁘다 저런 것이 예쁘다라고 중얼 중얼 거려보았다.

정원에 저런 큰 파라솔을 펼쳐놓고 테이블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상상을 하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단만...



온실을 구경하다

어떻게 간 곳인데 구경 못하냐...형형색색 예쁜 꽃 모종들이 열을 맞추어 서 있었다. 긴 하초를 안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저 모종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신기한 모종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런 꽃도 있었구나.. 어찌~ 이런게? 놀라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다.

사실 가든조아를 찾아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큰 대리점도 아니었고, 서울과 가까운 일산쪽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녀온 후의 만족도는 거나 군동수단과 상관없이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컨셉을 다지고 아늑히 일산에 화원을 다녀보다 이런 경험은 할수 없을 것이니까. 그저 가깝고 눈에 좋기만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는 동안의 기대감, 도착 했을때의 놀람, 처음 보는 모종들과 꽃들 하루가 놀람의 연속이었다.



www.gardenjoa.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031)634-0326

그 많던 '숲사람'들은 어느 숲에 깃들여 살고 있을까?

무더운 여름이다.

한 낮의 날 선 땡볕을 피해 산에 든다. 가쁜 숨이 숲 그늘에 들자 언제 그랬나 싶게 찾아진다. 덤으로 마음도 편안해진다. 키 큰 나무의 그늘을 찾아 숨결을 고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부터 시린 물소리가 가득 넘쳐난다.

도심의 가로수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싱그런 나무의 숨결이

이 숲에서는 잔잔한 물결소리 같은 것은 왜일까?

가만히 나무를 안아 본다.

광주 생명의 숲

푸른 광주 21 협의회

글 / 사진 김 경 일 사무총장



매미들 울음소리
폭포처럼 쏟아지는
한여름 굴참나무 숲
한나절 내내
홀로 놀아 본 아이는 안다

사슴벌레가 좋아하는 단물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지지난해 겨울
폭설에 부러진 가지가 삭아져서
나무가 제 몸을 부러 벌레들에게 내준 자리
딱따구리 산새들이 굴뚝이 찾느라
날선 부리로 툭툭 쪼아댄 생채기였음을

굴참나무가 느릿느릿한 생명의 속도로
제 몸 속에 갇혀 놓았던 비와 바람과 햇빛
숲 속의 모든 것들을 불러와
제 몸의 상처를 스스럼없이 덮는 것

이제사 아이는 안다
아프게 생채기가 나서야
누군가에게 단물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를 먹일 수가 있구나

굴참나무 오래된 숲
그 나무 아래 한나절
사슴벌레와 함께 낮잠을
실컷 자고 나온 아이는 안다

자신이 오래 전 그 나무 아래
한생을 묵었다가 떠난 풀벌레였다
풀벌레를 벌름 잡아 잡순 개구리였다
개구리를 날째 채간 어치였다
온 숲 뒤흔들던 목탁새, 빼꾸기였다
바람 햇빛 빗방울 이었다
굴참나무 발목을 덮었던 나뭇잎 갇아먹던 미물이거나 지렁이였다
사슴벌레가 기를 쓰고 빨아먹는 생채기
단물 이었다

이제사 아이는 안다
상처 입은 교라니 한 마리
제 가슴에 고개를 깊이 파묻고 잠들고 간 밤새 내내
하늘의 별들까지 굴참나무 아래로 내려와
오래 오래 그 자그마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갔음을.

〈굴참나무 숲으로 간 아이〉 전문



숲을 찾는 사람들은 그 숲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얻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은혜로운 숲을 자신의 삶터 주변에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 한다. 작은 마당에 꽃밭을 가꾸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마당이 없으면 화분이라도 흙을 담아 자신의 삶터에 나무를 키우려 한다. 이렇게 삶 가까이 작은 숲을 두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의 뿌리가 '숲사람'이어서 그렇다. '숲사람'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생경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되짚어보면 사람들이 숲에서 나왔음을 누구나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들은 무례하게도 자연생태계의 블랙홀, 거대 도시를 스스로 세우며 모든 자연계의 우위에 서 있다는 자만심과 헤아릴 수 없는 거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아름다운 생명체인 숲을 난도질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욕망이 헛되었음을 눈치 채게 되었다. 우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숲사람'을 조우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다시금 숲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파트너였는지 깨닫게 된 것에 안도감마저 든다. 요즘 숲이 생명의 본거지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사람들은 숲과 소통하며 즐거워한다.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다보면 가슴 속에는 기쁨이 샘솟는다. 아이들 손을 잡고, 아니면 사랑하는 이와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또는 홀로 숲길을 걸어가는 체험은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숲에서 못 존재감들을 만나는 영성이 가득한 시간이다.

북유럽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하루 종일 숲에서 논다. 함께 간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비밀스런 은신처를 풀과 나뭇가지로 짓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물속에



서 철벽거리며 개구리, 도마뱀 그리고 곤충과 지렁이등의 숲속 친구들과 함께 논다. 시골에서 자란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듯이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신나게 놀다가 햇볕에 그을려서 저녁 무렵이면 개밥벌레를 보고 돌아오던 것처럼 그렇게 숲 유치원을 다닌다. 독불장군으로 자라지 않게 하고 각각의 존재를 인지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인간이 교육을 받는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 싶다.

숲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어머니 품 속 같은 역할이 유치원 어린이들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다.

생애주기형으로 숲과 함께 살아가는 숲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끝이 없다.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의 태교를 숲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숲의 품에서 길러 키워낸다. 온 생애 내내 숲을 활용하여 건강과 삶을 살찌우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숲 치유, 숲 해설, 숲 체험 등등 숲의 품에서 숲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죽어서도 숲의 품에서 수목장으로 숲사람들은 숲에서 떠나지 못한다. 숲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맨 몸, 맨가슴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자연과의 밀착도를 높이는 것 같다.





고품질의 자연을 만나는 것은 문명의 이기와 결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숲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는가?

숲은 어디를 보든 새로운 얼굴로 천변만화를 보여준다. 길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라. 숲이 들려주는 신비한 소리에 집중하라. 새소리, 벌레소리, 나뭇잎 소리, 물소리... 나무와 부름겨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 그 물이 나무의 세포를 따라 고루 퍼지는 소리.

소리는 숲이 제 몫으로 살아있다는 또 다른 존재증명이다.

나뭇잎이 돌고 나온 소리는 허파파리 가득 싱싱한 산소를 부리고 땀줄을 따라 그 소리가 생명으로 꿈틀거린다. 두꺼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아 보라.

나무 밑에 떨어져 썩어가는 낙엽들의 냄새들과 부드러운 촉감에 발을 맡겨보라. 흐르는 계곡물에 발과 손을 담가보라. 한 치의 틈도 없이 숲은 나와 한 몸이 되었다. 나뭇가지와 잎을 흔들며 바람은 분다. 비는 더운 숲을 적시



주며 즐거울 것이다. 눈은 추운 나무를 덮어주며 올 것이다. 그리고 밤은 오고 또 밤은 올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전 지구적으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서 일까?

자신의 삶터 주위에 나무와 숲을 지키고 가꾸려는 숲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의 국민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구노력으로 숲을 복원하고 조성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도시개발로 훼손하였던 숲을 복원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도시는 확대팽창일로로 지향하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의 숲이 마구잡이로 뜯리고 잘리고, 없어지고 있어 가슴이 쓰리다. 숲의 복원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복원비용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완벽한 복원기술과 조성 기법으로도 개발업자들이 밀어낸 숲의 다양성을 되찾아 오기란 힘든 일이다. 더욱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개발을 원한다면 건강한 숲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그와 곁들여 자연과

인간의 상생구조로서의 새로운 개발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숲의 역사에서 본다면 인간들은 어쩌면 풀 한포기 보다 못한 미미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숲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존재란 아니다.

숲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품속에서 안아 먹여 키워줬던 인간에 대해 이렇듯 처절하게 배은망덕을 느끼는 때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기념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존재가 인간만이 아니라면, 숲이 그들의 기억의 저장고에 새긴 숲의 파괴와 도벌의 역사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대대로 무거운 등짐으로 되돌아와 지워질 것이 확실하다. 우리 '숲사람'들이 뼈아프게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어야 행복하다.

인간은 자연과 숲으로부터 생명의 그물코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간들이 숲의 존재를 지워 없애버리는 순간 인간들은 마치 벌거벗은 존재,

'팽 저만 추워질 하잘 것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누구나 나무 한그루 심을 시간은 아직 있다.

너도 나도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가꾸는 나무들이 모여 숲을 다시 이룰 수 있다.

'숲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이 샘솟는 숲을 꿈꾸고 희망한다.



오는 것을 귀하게 받는 이복임씨 정원



“처음엔 너무 넓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 힘든 일을 한 것은 정작 사람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정원에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는 자연에게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네요.”

분당 바라산 등산로에 위치한 이복임씨의 정원은 산 골짜기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자연친화적인 정원이다. 12년 전에 2000여평(6,600m²)의 터를 마련하고 7년 전 입주하면서 가꾼 정원에는 단풍나무, 벚나무, 소나무, 고광나무, 목련, 꽃사과, 층층나무, 능소화, 해당화, 좁작살, 산딸나무, 함박꽃나무, 목수국, 불두화, 배롱나무, 찔레, 황철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동백, 앵두나무, 조팝 등의 목본류와 창포, 으아리, 접시꽃, 작약, 무스카리, 수선, 사스타데이지, 월추리, 쑥부쟁이, 옥잠화, 비비추, 노루오줌, 돌단풍, 앵초, 상사화, 말발도리, 백합, 복수초 등 초본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로 어우러져 산의 정경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다.

집 앞 가든 게이트가 있는 주정원에는 벽돌을 활용해 원형으로 조성한 화단을 중심으로 수고가 낮은 목본류와 초본류를 위주로 식재하여 산의 전경을 정원으로 끌어 들였다.

길을 따라 다양한 모양의 마운딩(언덕)을 주어 입체감을 주고, 길과는 떨어져 쉽게 보이지 않게 조성된 작은 연못들은 숨바꼭질을 하듯 신비감을 준다.

주정원을 지나 안구가 시원해지는 잔디정원 주변으로 향아리, 여러 모양의 석등 등 고전적인 조형물을 배치한 전통 정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간결한 선을 이용한 디자인은 소박하면서도 단아하다. 전통 정원을 지나면 산골짜기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양 옆으로 손이 닿기 쉬운 소나무 군락, 철쭉 군락이 조성되어 있다. 소나무 숲을 지나면 여러면 가득한 큰 연못이 있는데, 계곡의 물을 끌어 들어 자연적으로 순환 되도록 했으며, 수생식물과 수변식물인 창포, 꽃창포, 붓꽃, 수련, 연꽃, 어리연 등으로 자연정수가 되도록 조성되어 있다.



자연에게 받은 선물을 사람에게

간이 좋지 않던 남편의 건강화 수술 후, 요양을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왔지만, 정작 터를 마련한 이유는 아파트에 살면서 중간 소음으로 인한 시비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주인장에게 지금의 정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나눌 기쁨까지 선사하는 곳이다. 오랜 시간 식물을 가꾸면서 마음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고 많은 이들과 식물로 교감하는 모임이 많아져서, 정원이 아름다운 5~9월까지 음악회, 댄스 테라피, 시낭송 모임, 원예작품 활동 등으로 많은 사람과 정원을 공유하며 함께 즐긴다고 한다. 도심과 멀지 않은 위치이기에 자연을 목말라하는 이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마음도 열어 준다고 한다.



땀과 함께 하는 해맞이

정원의 주 관리는 이른 새벽 해뜨기 전에 2시간 정도 잡초 제거와 옮겨심기 하고,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찾아 다니며 관수를 하면서 각 식물의 상태를 관찰한다고 한다. 소홀하면 식물은 어떻게 알고는 아이가 투정을 부리듯 티가 난다고 한다. 또 처음엔 잡초라고 무조건 제거만 했었는데, 생명의 존귀함에 잡초라 하더라도 다른 식생에 큰 해가 되지 않으면 오는 것을 귀하게 받아주는 생각으로 어우러져 살아가게 놓아 둔다고 한다. 처음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 했을 때는 넓은 터에 일은 많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 힘든 날도 있었지만, 선조들의 말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착화되는 식물들이 많아지고, 개체수도 늘어 지금은 우세 관리만 잘해도 정원이 풍성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작은 정원은 큰 정원의 아버지

비닐하우스 한 동 가득한 석부작, 분재들이 주인장의 감성을 대신 말해 주는 듯 하다. 도심 생활에서 시작한 야생화 분경과 분재들은 정원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작은 화분 안에 식물을 배치하고 식재하며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큰 구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지금의 정원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전지, 전정은 목본류에 필수적인데, 그 기초인 수형을 만드는 작업을 분재에서 충분히 숙지한 후 큰 나무에 실행하니 실패율이 낮았다고 한다. 일반 정원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주인장은 원예활동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 했던 것 같다.

전지, 전정은 나무마다 하는 시기가 달라서 정확한 시기를 파악한 후 기입장을 만들어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겨울 전정은 주로 낙엽수의 낙엽이 떨어진 후 해주고, 봄 전정은 봄에 꽃이 피는 종류들이 꽃이 지고 난 후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여름 전정은 잎이 너무 무성한 것에 한해서 속아 주는 정도로 해 주며, 가을 전정은 상록수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정원의 영양 관리 중 목본류는 1년에 한번 봄에 일반퇴비를 낙엽을 부숙시킨 것과 섞어 수관폭에 구덩이를 10~20cm 정도 파서 넣어 주고 흙을 덮어 준다고 한다. 이 때 수관폭이 비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초본류는 일년에 두 번 봄가을에 퇴비를 흙 위로 흩뿌려 주는데, 비료가 과하면 도리어 생육이 좋지 않고 고사하는 것도 생기기 때문이다. 병해충 방제는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어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연에 해가 될만한 것은 되도록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다. 꼭 해야 한다면 농림기술센터의 유용 미생물을 좀 더 공부해 활용해 볼 생각이라 한다. 신과 더불어 가는 만큼 소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지난 8월 8일 금요일, 어느 여름 방학날 청어가 어린이와 함께 숲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자리를 마련하여 찾아가 보았다. 바로 동네 언니, 오빠, 형 같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1:1로 만나 함께한 시간이다.

숲에서 놀면서 크는 어린이가 놀 줄 아는 청년이 된다!

숲에서 어린이와 함께 놀며 숲을 더불어 사는 삶터,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인 "멘토-멘티의 숲"

우리 어린이들의 최대 고민은 놀 수가 없다는 것이다. 놀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놀러 나간 놀이터도 텅텅 비어있어 함께 놀 친구가 없고, 같이 놀아주는 동네 언니, 형들도 없다.

또 시간을 내서 찾아간 공원에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자연은 과학 공부의 대상, 보호해야 할 이론적인 가치로만 남는 건 아닌지 씁쓸한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미래의 청년이라는 것이다. 놀면서 크지 않은 어린이는 놀 줄 모르는 청년이 된다. 놀 줄 모르는 청년은 대학에, 취업에, 성공에 쫓기듯 살아가며 어찌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늦게 방향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침 9시, 멘토로 참가한 청년들에게도 어린이와의 만남은 쑥스럽기만 했다. 숲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거닐 길을 확인하고, 함께 부를 노래를 연습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청년들.

10시가 되자 "와아~"하는 함성과 같은 소리로 인사를 하며 달려오는 어린이들을 보니 기대가 설렘을 넘어서 어느새 어린이들과 손을 꼭 잡고 짝꿍이 되었다.





서로의 멘토멘티가 되어 청년과 어린이가 함께 안산 숲 자락길을 걸으며 토끼풀 꽃으로 팔찌를 만들어 서로의 손목에 걸어주며 멘토-멘티 우정 악세사리로 삼았다. 어디든 흔하게 있는 토끼풀이지만 어린이와 청년들은 처음만난 오늘, 작은 토끼풀에 의미를 담아 소중하게 간직한다. 이어 땅에 떨어진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 자연물을 이용해 서로의 얼굴을 만들어본다. 쫄쫄물 찰흙에 자연물을 붙여 만든 얼굴은 나무 기둥에 붙여 함께한 추억의 흔적을 남긴다.



오늘의 진행강사인 신유나(청어, 더불어꿈 대표)님은 "청소년문화단체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놀던 경험을 숲에서 풀어낼 수 있어서 기쁘다"며 누구보다 신나게 노래와 춤으로 여는 놀이를 시작했다. 또한 "처음 만난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놀이와 랜드아트를 준비했지만 사실 숲이라는 넓은 자연의 품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이 놀이거리입니다. 그걸 찾아내고 놀이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을 키워주고 함께 하고 싶어요."라며 멘토-멘티숲 취지를 소개했다.

숲에서 한두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서로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참가한 청년 멘토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고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며 참가 소감을 이야기해주었다.

청어 [청년, 숲과 어울린다]

이렇게 청년들의 어린 시절 감성을 살려주고, 어린이들을 통해 자산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

"멘토-멘티는 서로의 꿈을 격려해주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학년이라 얼마나 멘토-멘티의 관계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어린이들에게 숲을 편안하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느끼고 훗날 이런 기억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신유나 대표의 말처럼 멘토-멘티숲과 청어의 활동이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청어 [청년, 숲과 어울린다]

■미국 정원에서 만난 생각

미국 동부 7개 수목원 · 식물원을 만나다.

지난 6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수목원과 식물원을 둘러보기 위한 7박 9일의 여행에 나섰다. 무엇이라도 알고 외아 할 것 같은 사명감과 의무감에 답사를 진행하면서도 적잖은 부담도 느꼈지만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은 절레였고, 행복했다. 그리고 저마다 개성있는 7개의 수목원과 식물원들을 만나다 어느덧,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필자는 식물전공자는 아니다. 단지 식물을 좋아해서 혼자 공부했고, 운이 좋게도 천리포수목원과 인연을 맺어 6년 넘게 이곳에서 홍보팀을 꾸리고 있다. 더구나 제한된 시간 안에서 넓은 수목원과 식물원을 바쁘게 둘러봐야 했기에, 행여 방문지의 가치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필자에게 레이첼 카슨은 "자연을 '아는 것'은 '느끼는 것'의 절반 만큼도 중요치 않다"는 명언으로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 아는 것은 얼마 없어도 미국 정원을 통해 느꼈던 진전한 감동과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내 생각들을 이야기해본다.

이번에 방문한 7곳의 수목원과 식물원

모튼수목원(Morton Arboretum), 시카고식물원(Chicago Botanic Garden), 뉴욕 식물원(New York Botanic Garden), 모리스 수목원(Morris Arboretum), 찬티클리어(Charitable Foundation), 롱우드가든(Longwood Garden), 미국립수목원(The United States National Arboretum)이었다.

글 : 천리포수목원 최수진 홍보팀장 사진 : 천리포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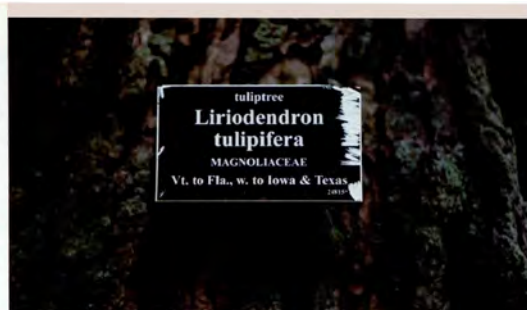


뉴욕식물원 입구

만남의 첫 인상

사람에게도 첫인상이 있듯 각 수목원·식물원들도 첫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답사자가 광대한 규모를 자랑했기에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도 각기 다른 그곳의 이미지를 대략 그려 볼 수 있었는데 그 첫인상의 하이라이트는 저마다의 개성이 녹아나 있는 방문자센터(Visitor Center)였다. 계절별 주요 식물들을 디스플레이 하며, 한쪽 벽면을 모두 파노라마뷰로 만들어 외부의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수목원의 방문자 센터는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리고 호수를 십분 활용한 시카고 식물원, 소박하면서도 평화로운 모리스 수목원, 정교하면서도 서정적인 철틀클리어, 세련되면서도 격조있는 뉴욕 식물원, 장엄하면서도 우아한 룬우드 가든, 심플하면서도 합리적인 국립수목원의 방문자센터는 내부 정원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길찾기 뿐만 아니라 그 곳의 역사와 가치, 교육 프로그램, 후원회원제도, 기부 등에 대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입장객을 마주하고 있었다. 건축 계획단계에 있어서 철저히 사용자 행태를 분석하고 고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방문자센터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여유와 활기가 넘쳤다. 7개 수목원 식물원의 성인 1인당 평균 요금을 계산해보아도 대략 \$18이다. 못해도 우리나라 사립수목원 평균 입장료보다는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그들의 문화수준이나 생활환경이 우리나라 보다 높아서였을까? 요금이 비싸다고 투덜거리거나 실망하는 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수목원과 식물원,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입장료를 올리자는 뜻이 아니다. 수목원과 식물원은 입장료에 걸맞는 기능을 담당하고, 입장객은 기꺼이 방문지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여윌수록 그곳을 즐기고 느끼는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뉴욕식물원 백합나무



뉴욕식물원 백합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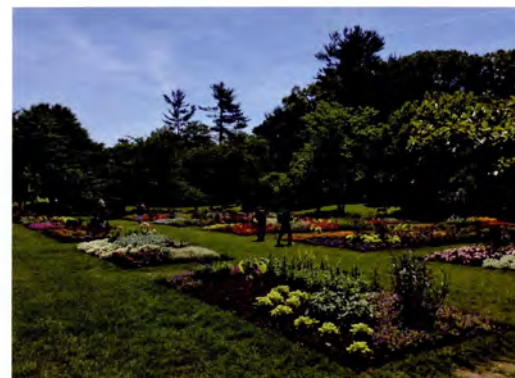
뉴욕식물원 장미원



뉴욕식물원 백합나무



룬우드가든



룬우드가든



룬우드가든 ▲

룬우드가든 ▼



정원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공간

각 수목원과 식물원의 탄생 스토리를 만나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옛 전통을 지키며 이어가는 정성들을 느낄 수 있었다. 몇 곳의 탄생 스토리를 소개하면, 모튼 수목원은 미국 최고의 소금 업체로 꼽히는 모튼 소금(Morton Salt)사의 설립자인 조이 모튼(Joy Morton)에 의해 1922년 설립되었다. 알고 보니 미국의 식목일을 창시한 줄리어스 스틸링 모튼의 장남이란다. 집안의 가훈이 '나무 심기(Plant Trees)'일 정도로 수목원 가꾸기에 온 가족이 나서서 적극 참여했다. 모튼이 죽을 당시 735acres(90만평) 소유의 수목원을 사회에 헌납하여 지금의 비영리재단법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연들은 수목원 방문자 센터를 비롯한 손힐 교육 센터(Thornhill Education Center)에는 여러 사진들과 설명, 유품들을 통해 고스란히 입장객들에게 전달된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나무의 재미난 인연은 이렇게 9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에게 나무사랑의 소중한 일깨워 주고 있었다.

룬우드 가든은 또 어떠한가? 세계적인 다국적 화학기업인 듀폰사의 창업자인 듀폰 드 누브르의 증손자 피에르 듀폰(Pierre S. du Pont)이 나무들이 마구잡이로 베어내질 위기의 수목원을 사들여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꾼 탄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듀폰의 살아있는 유산 룬우드 가든은 듀폰의 유언대로 나무를 보호하면서 가든 디자인과 원예 교육,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북미 최고의 전시형 정원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북미에서 가장 사랑 받는 정원 중 한 곳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룬우드 가든 뒤에는 설립자의 스토리를 잘 지켜가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실천과 연구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감동적인 탄생 스토리만 의미가 있을까? 아돌프 로젠가르첸(Adolph G. Rosengarten)부부의 별장 사유지로 처음 조성이 된 첼터클리어는 부부가 아들의 결혼선물로 이곳을 물려주게 되면서 시작이 된다. 즐거운 정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각 구역은 7명의 가드너들에게 할당되어 개성있게 표현된다. 상식을 뛰어 넘는 다양한 소재와 유머러스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주제원은 그 이름부터 남다르다. 과거 테니스장을 다이내믹한 정원으로 바꾼 곳은 테니스 가든(Tennis Garden), 로젠가르첸 주니어가 살던 집 안팎의 재료들을 그대로 살려 만든 루인 가든(Ruin Garden)은 곳곳에 숨은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가드너가 직접 제작한 의자와 테이블, 식물보관함은 무궁무진한 스토리의 힘을 보여주고, 유머러스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정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롱우드가든



롱우드가든

후원과 기부의 정원문화

미국 수목원과 식물원을 둘러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점이 있다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었다. 물론 부호들의 기부로 조성된 수목원과 식물원들이 있다보니 재단의 여유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목원과 식물원들은 후원과 기부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2012년 기준 모튼 수목원의 1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82억이 넘는다. 웬만한 사립수목원 예산규모를 합친 수입보다 많다. 그 내용을 확인하니 소매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관 및 개인의 기부나 성금모금, 후원회비이다. 입장수입은 전체 순위에서 6위로 10억 뿐이다. 비싼 입장료에 비해 입장수입이 적은 이유는 단 순 티켓구매보다는 후원회원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후원회원이 많다는 것은 지속적인 방문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수입이 입장료인 국내 수목원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기부자를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 부서를 따로 두고, 기부를 하고 싶게끔 다양한 이벤트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부의 당위성

롱우드가든의 자원봉사자 수잔



1



2



3



4

1. 모리스수목원 비석-기부자
2. 모튼 수목원의 기부 & 후원
3. 모튼 수목원의 기부 & 후원
4. 모리스수목원 방문자센터

제정적인 도움 외에도 수목원·식물원 곳곳에서 가드너처럼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롱우드 가든에서 만난 '수잔'은 온실에서 시든 꽃잎을 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실한 자세와 선한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청소년·어른 할 것 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는 질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을 말해줬다. 대부분의 수목원과 식물원들은 차비와 식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일 년에 한 두번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재능기부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준다. 시간과 노동을 나누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나누는 고맙고 아름다운 만남이 그곳에 있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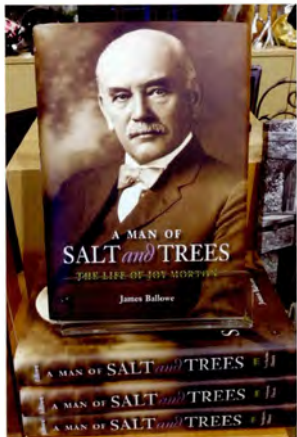


4



5

1. 모튼수목원 어린이정원
2. 모튼수목원 방문자센터 내부-스토리
3. 모튼수목원 방문자센터 내부-스토리
4. 모튼수목원 방문자센터
5. 모튼수목원 어린이정원



살림자 조이모튼



손힐교육센터



손힐교육센터

시간의 미학이 날마다 재창조

잔뜩 모양을 내고 멋을 부린 나무들과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보면서 연신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의 뒤에 있는 배경 아닌 배경이 함께 보였다. 오랜 세월을 건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나무들과 남아 만들거리는 난간과 이끼 낀 돌계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나지도 않고 도드라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의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은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아직도 뉴욕식물원의 톨립나무, 롱우드가든의 목련, 첼티클리어의 톨립나무 아래서 느꼈던 그윽한 삶의 향기를 기억한다. 슬한 사연과 추억을 간직 한 채 두 아들은 죽히 넘는 나무들을 보면서故 민병갈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인생은 길어야 백 년이지만 나무는 천 년까지 삽니다. 나는 적어도 3백 년을 내다보고 수목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 나무를 가꾸면서 깨달은 것은 수목원 사업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수목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모든수목원

융합과 공유가 지식을 가능케한다

수목원과 식물원은 왜 있어야 할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의 안식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식물 보호를 통해 사회의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식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나무와 숲의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미래의 어른인 아이들을 위해 정원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려주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풍부한 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에 힘 쏟으며, 혁신적인 재활용과 퇴비를 활용하고 이 모든 것이 지속가능하며 이러한 것들이 지속가능한 수목원과 식물원이 되기 위한 덕목이 아닐까? 아름다운 식물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과 순환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숨겨진 내면의 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목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원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첼티클리어 톨립나무



첼티클리어 방문자센터



첼티클리어 테니스 가든



첼티클리어-다양한 의자 ▲▼

첼티클리어-다양한 의자 ▼



헤이리 예술인 마을 정원 화가의 그린 게릴라 박요원

파주 헤이리에 예술인 마을에 위치한 화가 박요원씨의 작업실 앞 정원은 10여 평에 주로 키가 낮은 초화류 위주로 식재된 소박한 정원이다. 금계국, 바늘꽃, 백일홍, 달맞이꽃, 덴드라미, 봉선화, 한련화, 채송화, 루드베키아, 에키네시아, 휴케라, 리아트리스, 수국, 국화, 돌나물, 무늬석창포, 부레옥잠 등으로 꾸며진 정원은 소소한 재활용품 조형물들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사실 이곳은 작업실을 마주하고 있는 쓰레기와 온갖 폐기물들이 쌓여 있던 공터였는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그녀는 7년 전부터 꽃을 사다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꽃이 있어도 쓰레기를 버리고, 새로 심은 꽃을 파가는 이도 있어서 팍팍하고 이기적인 도시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에 실망도 많았지만, 조금씩 동화되는 사람들의 격려로 지금까지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화가의 손에서 새로 태어나다

이 정원은 청록색 계열의 개성 있는 색이 칠해진 조형물들이 시선을 잡는다. 돌, 나뭇가지, 기왓장, 플라스틱 바구니, 팔래집게, 테이블, 의자, 파티션, 화분, 인형 등 버려지는 물건들에게 색을 입히고 나름의 생명력을 부여해 재탄생된 조형물들은 꽃과 함께 화려함을 더한다. 나뭇가지는 숯대로, 플라스틱 바구니는 추상물로 기왓장은 판석으로 돌은 경계석으로 훌륭하게 재물을 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기물이 1일 40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그 폐기물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종이 2~5개월, 우유팩 5년, 종이컵, 나뭇가닥 20년, 일회용 기저귀, 컵 100년 이상, 스티로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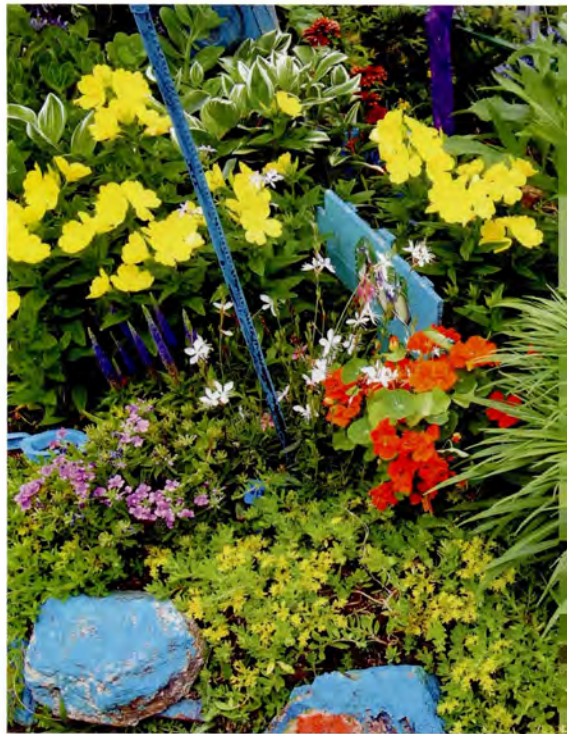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캔 등은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새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 같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지구를 현시대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폐기되기 전에 한번 더, 아니 그 이상으로 쓸모를 마련해 주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그린 게릴라 정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녹색시민운동으로 실천되고 있는 '게릴라 가든'은 매년 5월1일이면 해바라기를 심어 기념하고, 버려진 땅에 쓰레기를 치우고 밤새 새로운 정원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도하는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는 운동이다. 그린 게릴라 가든의 모태가 된 그린 게릴라는 1973년 뉴욕의 녹색 운동 예술가 리즈 크리스티(Liz Christy)와 그 친구들의 모임으로, 공터가 쓰레기로 더럽혀지는 것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그녀가 스스로 실천하는 정원문화 그 자체 그린 게릴라였다. 누구나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행복해 한다. 비록 보도 블록 사이에 난 잡초라 해도 꽃을 피우면 다시 눈길이 가고, 척박한 곳에서도 꽃을 피워주니 고마운 생각마저 든다. 공터에 쓰레기 더미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꽃이 가득한 자투리 정원은 지나는 이의 마음마저 행복함에 젖게 했으리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처음엔 무작위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치우는 것이 가장 힘이 드는 일이었다고 한다. 치우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길을 걷다가 보이는 예쁘게 생긴 꽃은 다 구해 심어 보곤 했다고 한다. 버리는데 익숙한 이들에게 양심을 버릴 수 있다는 지각을 갖게 하고,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시간은 사람들을 변하게 했다고 한다. 한층 깨끗해진 공터 정원은 주위 사람들의 습관이 되고, 주말이면 예술인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포토존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한다.



“

작업실 앞에 보이는 쓰레기 더미의 오염이 전해져 나의 심신도 부패되는 듯이 느껴져 시작한 자투리 정원이 7살이나 먹었네요. 지난 세월만큼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정원이 새겨져 있을 거란 작은 소망으로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어느 방송매개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꽃을 보면 행복해진다.’**가 1위를 한 것을 봤어요. 크지 않지만, 꾸준한 마음으로 정원 지킴이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만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행복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며 욕심을 부려 봅니다.

”



생활의 지혜로 만드는 정원

정원의 관리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만 할 수 있어서 관수가 가장 걱정이라고 한다. 개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도 시설이 없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어서 일일이 물을 떠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패트병을 활용한 관수로 조금 수월해졌다고 한다. 패트병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땅속에 거꾸로 박아 서서히 땅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인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성 패트병은 식물의 사이사이로 옆으로 가려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한다. 또 예전엔 관수를 위해 일부러 작업실에 나온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식재의 선택 시, 물 관리가 용이한 종류를 선택 식재하여 관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한다. 식재는 씨앗을 뿌려 자연에서 저절로 생식과 번식하는 것을 애초의 계획으로 잡았으나 의도한 정원의 느낌이 나지 않고 계절마다의 특색이 부족해 월동은 되지 않지만 화려한 계절초를 사다가 식재한다고 한다. 각 계절의 대표적인 일년초들은 계절마다 사서 식재한다는 것은 조금의 부담은 있지만 보는 즐거움이 커 꾸준히 식재하고 있다고 한다.

방제와 비료는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작업실에서 마시는 원두커피 찌꺼기를 햇빛에 말려서 뿌려 효과는 작지만 친환경 해충의 방제와 비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꽃교육안내 EDUCATION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 개강 현장

우리꽃 교육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가장 많은 수강생을 배출해 온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가 지난 8월 6일 개강하였다. 이번 기수는 특별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지원으로 경기도 거주민에 한하여 8만원이라는 파격금액에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많은 경기도 지역의 수강생들이 신청하였다.

첫 강의로는 '도시농업'을 키워드로 그 유형과 기능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실내 온실에서의 푸르른 교육장이 딱딱한 교실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다가와 수강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강의에 집중 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당일 실외수업으로는 우리씨드그룹 박공영 회장의 우리꽃 야생화 농장 견학이 있었다. 야생화의 생산과 번식, 품종개발과 로얄티, 정원의 디자인과 식재부터 관리법까지 야생화에 대한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강생들의 배경으로는 주말주택의 관리, 귀농 또는 귀촌 희망, 화훼농업으로의 진출, 아파트 정원관리, 베란다정원, 펜션 운영에서의 정원관리 등 각각의 배경과 목적을 가진 수강생들이 모였다.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배워가면서 더 큰 교육효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더욱 기대된다.

수강생들은 교수님들의 진실한 강의와 체계적인 준비 및 적극적인 답변에 큰 만족을 표현했고, 이론 강의 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습득과 이해를 할 수 있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수업이라고 말했다.



추후 강의 일정 / 교육기간 2014 8.6-10.22(12주강의)

2강: 야생화의 적응과 관리 / 3강: 텃밭 재배와 작목기술 정보 / 4강: 조경식물의 계절별 관리 / 5강: 국화분재 재배기술
6강: 녹색환경과 숲 활동 / 7강: 종자번식과 육묘 / 8강: 허브와 아로마테라피 / 9강: 실내조경의 노하우
10강: 친환경 유기농업과 토종종자 / 11강: 실내식물의 종류와 디자인 / 12강: 가든파티

우리꽃 교육안내

2015년 이천그린아카데미 6기 신청 상시기능(선착순 마감)

우리꽃 영농조합

연락처 : 031 - 634 - 7990



시코키아눔 천남성
(Arisaema sikokianum)

천남성 열매

두루미천남성



아름다운 유혹, 천상의 열매 천남성 속 (Genus Arisaema)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약을 받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그때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 이때 피를 토하게 하는 약제가 바로 천남성과 부자(투구꽃)를 섞어 만든 독약이다.

주로 봄에 개화하고 간혹 여름에 개화하는 종들이 있다. 감자와 같은 뿌리줄기(괴경)를 갖는 다년생 식물로 150여 종이 속을 이루고 습기가 있는 삼림지나 돌이 있는 황무지 등에 자란다. 재배종인 종들은 주로 한국, 히말라야, 중국, 일본, 북미산 등이다. 이 종들은 매혹적이고 특이한 꽃과 열매를 가졌다. 잎은 대체로 단순한데 천남성과 같은 3장에서 두루미 천남성과 같은 여러 장으로 손바닥 모양을 한다. 꽃의 생김새가 매우 흥미로운데 불염포라 하는 트럼펫 모양의 통속에 촛불모양의 꽃이 앉아있는 모습이 경이롭다.

천남성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지표로 불염포의 부니가 흰색에서 청동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잎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입수도 다양하다.

여름을 지나면서 불염포가 점점 사라지고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가 송글송글 자라는데 가을이 되면 아주 빨갛게 익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러나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들 특히 새의 먹이로 좋다.

한국에는 천남성 을 비롯해 9종의 천남성 속 식물이 자라고 있다. 대체로 낙엽 활엽수림하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정원의 한켠에 심어 감상해 보면 또 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다. 그러나 절대 잎과 뿌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식물을 처음 공부할 때 먹고 정말 천상 같았던 추억이 있는 식물이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화백사)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전조한 곳에 잘 사는 너도부추 속 (Genus Armeria)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지만 아리가든과 같은 암석정원 혹은 옥상 정원등에 좋은 다년생 식물이다. 상록성 다년생 식물 혹은 아관목상의 80여 종의 속으로 유럽, 터키,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미의 태평양 연안, 남미의 해안 절벽에서 산악지역에 존재한다.

대체로 강한 햇빛과 해풍에도 견디는 내염성 식물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일반 토양보다는 마사질 건조토양에 알맞다. 분경으로도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다.

잎은 솔잎과 같은 침형 혹은 선형으로 매트모양을 하거나 쿠션모양으로 땅에 붙어 자란다. 꽃은 이른 봄 피어나고 작은 비단너도부추 같은 것은 10cm 정도로 키가 작고 어떤 종류는 키가 60cm까지도 자란다. 꽃색은 대체로 하양, 분홍, 빨강이 핀다.

이들은 암석정원 혹은 수반이나 화단의 앞쪽에 적합하다. 내한성이 뛰어난 상록성으로 배수가 잘 되고, 적절히 비옥한 토양과 햇빛이 충분한 장소에서 기른다. 증식은 가을이나 봄에 화분에 파종을 하거나 분주를 하고 삽목 한다. 온실에서 붉은 웅애와 진디에 의한 피해가 있으므로 이른 봄 방제한다.



눈개송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ara)

하얀 가녀린 아름다움

눈개송마 속 (*Genus Aruncus*)

보통 노루오줌(*Astilbe*)과 비슷한 모양을 하는 식물이지만 좀 더 산속에서 꼬투리가 다른 형상으로 피어나는 식물이다.

덤불을 형성하는 지하 경을 갖고 털이풀(*Filipendula*)와 조팝(*Spiraea*)과 가까운 다년생 식물로 2~3종의 속으로 북반구의 산악지대와 축축한 삼림지에서 서식한다. 이들은 호생 하는, 긴 줄기와 뚜렷이 맥이 있는 톱니모양의 작은 잎이 있는 우상엽이 있다. 작고 깨끗한 하양의 크림 같은 흰색의 꽃은 원주꽃차례로 피고, 꽃꽂이용으로도 유용하다. 물기가 있는 화단이나 정원의 나무 아래서 기른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고 습기가 있는 비옥한 토양에 양지 혹은 반음지에서 기른다.

증식은 가을 혹은 봄에 파종을 하고 자생지에서 꼬투리를 제거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씨를 뿌린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분주하거나 이른 봄에 눈을 떼어내 삼목 한다.



실은쑥
Artemisia schmidiana 'Nana'

향이 아름다운

쑥 속 (*Genus Artemisia*)

상록성 혹은 낙엽성의 관목, 다년생 식물, 그리고 일년생 식물 등 300여 종의 속으로 건조한 들판, 대초원 그리고 관목이 형성되는 북반구와 소수는 남아프리카와 북미에서 발견이 된다. 쑥은 잎이 어긋나고 일반적으로 향이 나는 허브식물에 속한다. 일반 쑥은 잡초로 분류되고 정원에 이용되는 종류는 잎의 색이 회색 혹은 은색의 아름다운 잎을 위해 길러진다.

이들은 암석정원이나 화단에 적합하고 몇몇은 요리용으로 사용되며, 몇몇은 허브정원에서 길러진다.

내한성 서리에 대한 내한성이 뛰어나고 재배는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에 강한 태양아래서 기른다. 고산식물은 정확한 배수가 되는 토양을 선호하고, 실은쑥과 같은 종은 돌터미나 갈라진 틈에서 잘 자란다. 대부분의 종은 밀도가 높고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양에서 죽거나 수명이 짧아진다. 가을에 다년생 식물의 밑 부분을 잘라주고, 만약 필요하다면 관목성질의 종과 재배종을 서식지의 밀집도를 유지하기 위해 봄에 잘라준다.

증식은 가을 혹은 봄에 파종을 하거나 봄이나 가을에 분주를 한다. 늦봄에 약간 굳은 줄기를 꺾듯이 하면 이른 여름에 뿌리를 내린다.



정원사의 일기(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9월

여전히 무더운 여름이다.

여름 꽃은 다양하고 어떤 노랗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쁘지 않는 꽃은 없는 것 같다.

도시의 밤거리의 형형색색의 불빛은 눈을 아프게 하지만 꽃은 눈을 즐겁게 하고 피로도 풀어준다.

9월의 정원에서는 즐거운 일이 많다. 여름 채소와 과일을 바꾸니 가득 담아 먹거리를 준비 하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조그만 텃밭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소극적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는 직접 텃밭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요즘 도시에서 봄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도시농업, 텃밭농사이다. 우리는 도시농업, 텃밭, 텃는, 과수 가로경관을 이제 먹거리 차원을 넘어서 정원의 관점에서 보고 정원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 텃밭은 채소정원, 텃는은 수생식물원, 과수는 과수정원, 가로경관은 정원의 입구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농촌이나 도시의 경관이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가까이하고 가꾸는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이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경관은 우리에게 먹거리(산소를 포함하여)를 주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고 아름다움을 주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으니 1석 4조 아니 더 이상이 될 것이다. 정원의 교육적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도 학교정원(School Garden)에서 정원의 교육적 기능을 무려 11개 과목과 관련을 맺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생겨 이에 대한 교육을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슬로우 푸드 코리아, 농업인연합회, 영양사회 등 여러 단체들이 식생활교육 분야에 접근하고 있으나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바가 건강, 환경, 배려, 공정 등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 각 단체의 개성을 살리면서 함께 할 부분에서는 하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을까?

영국의 사례가 꼭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영국의 경우 삶을 위한 먹거리(Food for Life)에서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진행해 간다. 여기에 토양학회(Soil Association), 먹거리가 중요하다(Focus on Food Campaign), 오가닉 가든(Garden Organic), 건강교육 협회(Health Education Trust), 공공건강 왕실협회(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 로또 같은 복권기금 단체(Big Lottery Funded)가 함께한다. 하나의 이름이면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름에는 많은 꽃이 피고 지고....

어떤 식물은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떤 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꽃은 잎을 먹은 후에 그냥 두면 예쁘게 피기도하고,

어떤 꽃은 나비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핀다.

>> 편두, 까치콩(Dolichos lab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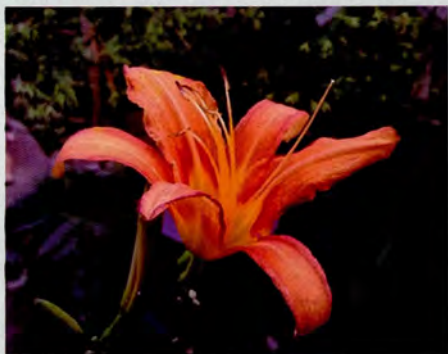
우리 마을 3층 높이의 지역활력소 건물은 우리장이 너무 많아 여름에는 너무 덥다. 지난해에는 보기에 좋지 않지만 그늘을 막기 위해 차광망을 쳤다. 올해에는 까치콩의 올라가며 자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녹화줄을 매달고 덩굴성의 1년초 까치콩을 유인하는 녹색 그늘 막(Green Curtain)을 쳤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예쁜 꽃도 볼 수 있다.

>> 쑥갓(Chrysanthemum corona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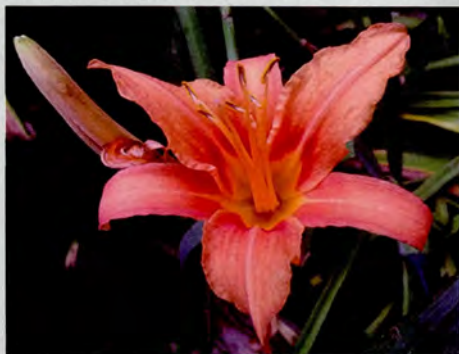


쑥갓이기에 대해 전에 얘기했지만, 잎을 먹을 수 있는 1년초 쑥갓은 채소정원에 들어가면 좋은 식물이다. 잎을 먹고 그대로 두면 아름다운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정원에도 어울리는 식물이다. 쑥갓을 잎채소인가? 꽃인가?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고..... 쑥갓은 채소정원에 쑥갓이기에 좋은 식물이다.

>> 왕원추리(Hemerocallis fulva for. kwanso)



여러해살이 왕원추리는 새로 올라오는 싹을 잘라 먹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꽃이 피면 꽃 또한 먹을 수 있다. 여름 식탁을 장식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부들레야(Buddleja davidii 'Black Knight')



인간은 먹지 못해도 여러해살이 관목 부들레야 꽃을 좋아하는 다른 생명이 있다. 앓싸~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이다. 영어명 Butterfly bush(나비의 관목)이며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 인간은 그 꽃을 보며 각 생명의 존재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 오레가노(Origanum vulgare)



꽃이 오래가서 오레가노인가? 오레가노는 꿀풀과에 속하는 서양허브 중 하나이다. 피자나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간다.

>> 펜넬(Foeniculum vulgare) vs 딜(Anethum graveolens)



VS



헛갈리는 두 식물이다. 두 식물 모두 요리에 쓰인다. 수프를 만들거나 생선요리, 피클 만들 때 쓸 수 있다. 잃은 신선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이 펜넬이고 어떤 것이 딜일까? 잎을 보고 알 수도 있고, 꽃을 보고 알 수 있고, 두 식물의 자람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산형과의 식물이면서 1년초(추운 곳에서)로 꽃차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반달이 되지 못하는 형태의 화서는 펜넬이고, 반달의 형태의 화서는 딜이고, 잎이 길고 딜에 비해 크게 자라는 펜넬에 비해 덜은 잎이 짧고 크게 자라지 않는다.

>> 부처꽃(Lythrum anceps)



여러해살이 부처꽃은 우리나라 습지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화단식물로 사용하면 좋다.

>> 옥잠화(Hosta plantagin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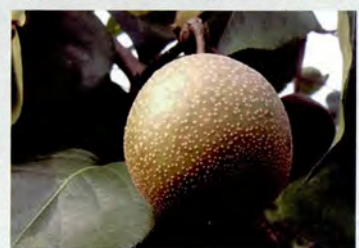


여러해살이식물로 반 그늘진 곳에 심어두면 넓은 잎이 시원하게 자라고 흰색의 꽃이 핀다.



사과(Malus spp.) 배 (Pyrus spp.)

어느 가정집에서 본 이 사과는 직경이 7-8cm로 작지만 맛은 대단히 좋다. 이 집에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유기재배를 하고 있다. 사과를 딸 때는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고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비틀며 따낸다. 또한 따는 시기도 중요하다. 너무 일찍 따면 맛이 나지 않고 너무 늦게 따면 저장성이 떨어진다. 수확하는 시기는 사과의 종류, 기후, 대목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같은 동네의 가정집 텃밭에 심어진 배나무, 봉치썩우기를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동네에는 적성병의 중간 기주 식물인 향나무가 없을 것이다. 동네 주변을 둘러봤으나 볼 수 없었다.



나의 생활 방식에 맞는 짝꿍 식물을 찾아보자!



정 순 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꽃집에서 식물을 구매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

첫 번째, 이 식물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돼요?

하지만, 화분을 구매한 사람마다 실내 배치하는 공간이 다 다를진대,

만약 화원 주인이 제시한 며칠에 한 번 주면 되는 기준으로 똑같이 식물을 관리한다면
식물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식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 관리다. 이번 호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로 진행되었던 '관리주기에 따른 식물 선택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현대 가정은 맞벌이, 전업주부, 오전·오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방식에 따른 식물 관리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가정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많으며 주로 거실 창을 기준으로 밝은 곳에 식물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실내 거실(광도 500Lux, 습도 50%, 온도 27°C)을 기준으로 작형 12cm 크기의 화분에 심은 식물체를 대상으로 식물의 시들(토양수분장력 10kPa)을 기준으로 한 관리 주기별 식물을 추천한다.

주 2회 관리할 수 있다면?

아벨란드라, 팔손이, 털머위, 스킨답서스, 임파티엔스 등은 자주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로, 화분 흙의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아 말랐을 때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올 만큼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한다.



아벨란드라



팔손이나나무



임파티엔스



털머위



스킨답서스

주 1회 관리할 수 있다면?

상록낙죽고사리, 마삭줄, 관음죽, 개운죽, 스파티필름, 싱고니움 등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적당한 식물들이다. 흙의 1~2cm 깊이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아 말랐을 때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올 만큼 충분히 물을 주면 된다.



싱고니움



아이비



파카라



마삭줄



스파티필름



류덴베기아(트리안)



아디안텀



관음죽



신호수



시콜라맨



아디안텀



크로톤



자금우



상록낙죽고사리



필레아

2주 1회 관리할 수 있다면?

2주에 한 번만 물을 주어도 되는 식물로는 인삼벤자민, 페페로미아, 산세베리아, 칼란코에,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호야 등이 있다. 물을 주는 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흙의 1~2cm 깊이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아 말랐을 때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인삼벤자민



페페로미아



산세베리아



칼란코에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호야

다양한 실내식물의 이용정보를 알고 싶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실내정원 (http://garden.nihhs.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내정원 꾸미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 화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내정원 꾸미기” 식물이용정보



가드닝 팁

식물에 물을 주는 시점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식물의 잎은 물이 없어 건조해졌거나 물이 너무 많아 뿌리가 상하였을 때 잎이 시드는 증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화분의 흙을 만져보고 물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 화분 용기에 흙을 너무 높이 채우지 말아야 한다. 화분 용기 높이에 따라 1~4cm 정도 여유 공간을 두어 물을 줄 때 흙이 바깥으로 튀지 않게 하고, 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

실내정원 꾸미기

농촌진흥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실내정원(http://garden.nihhs.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내정원 꾸미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킨십이 싫어!! 신경초(미모사)

미모사는 평소 세포의 내압과 외압의 차이로 잎이 짝 꺾여 있다. 자극을 받으면 재빨리 물의 움직임으로 정지시키고 압력을 내려 잎을 접는다. 이런 방어 기작은 잎을 먹는 곤충들로 인해 키우는 목적이 있다. 또한 밤이 되면 잎을 접는데 이를 수면운동이라 한다



미모사



접힌 미모사



미모사의 반응

가든인 이광범기자

야생 열매의 최고봉, 다래나무 이야기

야생 열매들의 최고봉

산에서 나는 야생 열매들 중, 다래는 머루와 함께 옛날부터 으뜸으로 여겨왔던 귀한 먹거리로 인정받은 최고의 열매다. 배를 굶주렸던 시절에는 구황식물로, 요즘 같은 풍요로운 시기에는 무궁해 별미식품으로, 세월이 암만 변해도 인기가 떨어질 날이 없다.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개다래(수꽃)



개다래(암꽃)



개다래(열매)



개다래(열매)

새콤달콤한 맛

한 입에 쏘옥 들어오는 크기가면서 새콤달콤 동글동글, 잘 익은 열매를 야생에서 따먹는 재미는 어느 다른 것에 비할 수 없는 그런 맛이다. 열매 모습은 잘 알지만, 세밀하게 관찰을 하지 않은 사람은 꽃과 잎의 모습만 보고 종류를 구별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다래나무(수꽃)

다래나무(암꽃)

다래 종류의 구별

흔히 야생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그냥 다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로는 다래와 쥐다래, 섬다래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열매로는 개다래가 있는데, 이들을 대형으로 개량시켜서 만든 원예종으로는 키위라는 것이 있어서 농가의 소득을 톡톡히 높여주는 고소득 작물이 되고 있다. 키위를 흔히 참다래, 양다래, 털다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식물들의 번식전략

야생에서 자라는 개다래와 쥐다래는 잎 뒷면이 털이 많은 편이지만, 개다래의 잎은 번식기에 주로 흰색으로 변해서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편이다. 하지만 쥐다래는 더러 흰색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연한 홍색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분과 수정이 필요한 시기에만 잎의 색깔을 변하게 해서, 벌과 나비의 눈에 잘 띄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히려는, 후손 번식을 위한 철저한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수분과 수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멀리에 있는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꽃 주변에 있는 잎의 색깔이 꽃잎처럼 변해서 곤충을 유혹하고, 더 이상 곤충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잎의 색이 원래대로 녹색으로 돌아가는 치밀한 계획, 바로 식물들의 번식전략을 여기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쥐다래(수꽃)



쥐다래(암꽃)



쥐다래(열매)



쥐다래(열매)



섬다래(수꽃)



섬다래(암꽃)



섬다래(열매)

열매의 종류 비교

이 종류들의 꽃은 대부분 비슷한 편이지만 열매의 모습은 각기 다른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래의 열매는 동글납작한 편이고, 개다래와 쥐다래의 열매는 모양이 길쭉하게 생긴 편이다. 쥐다래의 열매는 타원형이지만 끝이 넓적하고 뾰족하게 생겼으며, 개다래의 열매는 끝이 길쭉하고 뾰족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다. 다래와 쥐다래의 경우는 익으면 달고 맛이 좋지만, 개다래는 혀를 톡 찌는 맛이 강하고, 뾰족 쓴맛이 있으며 달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것이 다르다.

반면에, 남쪽 섬지방에서 자생하는 섬다래는 열매가 갈색이고 표면에 털이 아주 많아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잎과 줄기 표면에도 짙은 갈색털이 있어서 쉽게 구별이 되고, 열매 표면에도 짧은 갈색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된다. 아주 작

고 동그랗게 생긴 키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식물의 생태 파악

어느 지역이라도 산에 다래 종류들은 흔히 많지만, 꽃피는 덩굴을 봤다고 해서 가을에 열매를 따러 가면 판권이 실수가 벌어진다. 다래 종류들은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고,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서 따로 핀다. 암꽃이 피는 덩굴을 확인하고 가을에 가야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이다.

줄기가 덩굴성이라서 다른 큰키나무들을 칭칭 감고 높게 올라가며, 원줄기는 희끗한 갈색인데다 잎은 아주 넓적한 타원형,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이른 봄에 돋는 새순을 따다가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해서 용도가 다양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우정아 DIY 재활용 가드닝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한 꿈을
키우는
이야기 정원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버려지는 플라스틱 박스를 플랜트박스로 활용해 보자. 플라스틱 박스는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은 정원의 스케일이 커져도 이동성이 있어 장소에 구애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박스에 이야기를 만들어 소품으로 꾸미면 꿈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 정원이나 동화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단, 어린이가 있다면 식물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실내 식물 중에는 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는 모든 물건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의 먹물 수 있는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Step by Step



1. 플라스틱 박스에 배수판을 잘라준다.



2. 배수판 위에 부직포를 잘라준다.



3. 펄라이트로 배수층을 만들어준다.



4. 식물들을 배치해 보고 식재한다.



5. 식물들은 시든 잎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6. 흙을 넣어준다.



7. 식물 사이에 흙을 채워준다.



8. 마사토와 자갈로 흙을 덮어준다.



9. 소품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관리법

배수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주기에 주의 한다. 물주기는 핑거 테스트 후 표토가 완전히 마르면 준다. 공중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해지면 분무기를 이용해 공중습도를 높여준다.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높일 장소는 통풍이 잘되는 밝은 그늘이 좋다. 특히 여름철은 병해충의 발생률이 높아 환기를 자주 시켜 주어야 한다. 여름철에는 냉방기에 의한 피해가 많이 생긴다. 냉방기의 바람이 직접 식물에게 닿으면 냉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장소에 유의한다.

>>가드닝 재료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차병진

가랑비 옷 젖듯이,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이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 표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식물병이 바로 '점무늬병'이다. 별 것 같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면 심하게 발생하여 식물의 생육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무늬병은 식물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으로서 주로 잎에 병반을 만든다. 그런데 점무늬라고 하여 단순하지 않다. 우선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조직이나 세포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점무늬(괴사 점무늬, 사진 1)가 있는가 하면, 세포는 살아있는데 다만 색깔만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점무늬(변색 점무늬, 사진 2)도 있다. 모양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무늬들은 작고 둥근 점무늬로서 그냥 '점무늬'(사진 3)라고 하는 반면, 병반이 클 경우에는 '둥근무늬' 또는 '둥근점무늬'(사진 4), 둥글지 않고 모난 점무늬들은 '모무늬'(사진 5)라고 한다. 마치 과녁처럼 둥근 무늬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면 '겹둥근무늬'(사진 6)라고 하며, 테두리의 색깔만이 변하여 가운데 부분은 정상인 것은 '가랑지무늬'(사진 7)라고 한다.

- 사진 1. 호접란의 잎에 나타난 괴사점무늬.
 사진 2. 색소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변색점무늬. 이 사진은 해충에 의한 피해임.
 사진 3.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무늬. 작고 둥근 모양이다. 담쟁이덩굴 갈색둥근무늬병.
 사진 4. 점무늬 병반이 커다랗게 나타는 둥근무늬. 때로는 작은 점무늬들이 서로 융합하여 커지기도 한다. 창미 검은무늬병.
 사진 5. 병원균이 잎맥을 넘어가지 못하여 병반이 둥글지 않고 모나게 만들어진 모무늬. 세균에 의한 감염일 때 잘 나타난다. 백일홍 세균성점무늬병.
 사진 6. 병반이 커지면서 둥근무늬가 겹겹이 만들어진 겹둥근무늬. 감자 겹둥근무늬병. (출처: www.agric.wa.gov.au).
 사진 7. 병반의 테두리만 색이 변하여 반지 또는 원 모양을 만드는 가랑지무늬(ringspot). 박태기나무 가랑지무늬바이러스병.
 사진 8. 잎 전체에 걸쳐 색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임의로 넓게 배열되어 있는 모자이크.
 사진 9. 다육성 잎을 가진 식물의 잎 뒷면에 나타난 더듬이.
 사진 10. 총채벌레의 섭식 흔적. 점무늬 같이 보이지만, 엽육조직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1. 세균에 감염된 목련 잎의 검은색 병반을 둘러싸고 있는 누런색 할레우(halo).
 사진 12. 점무늬 병반의 표면에 만들어진 병원균광량의 구조물. 이팝나무 녹병.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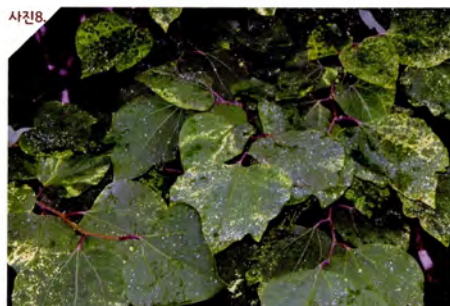


사진8.



사진9.

작은 변색점무늬가 잎 전체에 나타난다

즉 점무늬병원균의 기주 범위 또한 매우 넓어서 선인장이나 강아지풀로부터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물이 다 기주라고 생각하여도 된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곰팡이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이다. 병원미생물 이외에도 해충이 흡즙, 섭식(사진 10) 또는 산란을 하였을 때나 우박, 강풍 등 기상환경에 의해서도 점무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과 제초제에 의해서도 점무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점무늬병들은 대개 곰팡이에 의한 것이다. 매우 많은 종류의 곰팡이들이 식물의 잎을 감염하여 점무늬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점무늬병원균들은 *Cercospora* 속, *Septoria* 속, *Marssonina* 등 불완전균류이며, 자낭균이나 담자균 등 나머지 균들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화훼작물들은 세균에 의해 점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바이러스성 점무늬는 커다란 목본식물만 아니라면 채소나 화훼작물 등 식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한다.



사진10.



바이러스에 의한 점무늬는 모자이크나 얼룩 등 탈색점무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세균성 점무늬는 동글다기 보다는 모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점무늬의 색은 어두운 편이며, 점무늬 주변이 누렇게 변하는 '둘레무리'(사진 11)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둘 다 병반의 표면에는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곰팡이에 의한 점무늬는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며, 점무늬의 표면에 어두운 색의 작은 점이나 먼지 덩어리 같은 구조물(사진 12)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식물조직과의 접촉이나 진딧물 등 매개충에 의해 다른 식물 개체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세균은 주로 관개수 등 물에 의해서 옮겨지고, 곰팡이들은 거의가 공기흐름(바람)이나 관개수에 의해 옮겨진다. 식물에 물을 줄 때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면 점무늬병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으나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며, 특히 곰팡이에 의한 경우에는 공기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많으므로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점무늬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감염한 세포로부터 멀리까지 번져가지는 않는다.

즉, 처음 감염한 세포를 교두보로 삼아 주변 세포들을 감염해 감으로써 잎사귀의 엽육조직에서도 일부에만 국한되어 병반이 나타나는 것이다. 병원균에 따라서는 효소나 독소를 내어 기주식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점무늬병원균들은 그저 일부 엽육세포들을 죽여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생장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일으키는 정도이다.

적극적으로 방제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어떤 점무늬병에 감염되면 큰 피해 없이 잎의 색깔이나 모양에 변화를 일으켜 오히려 관상가치가 높아지고 상품성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또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점무늬병에 효과가 좋은 작물보호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집 안에서 키우는 식물이라면 큰 피해를 주는 병도 아닌데 굳이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여 이 병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냥 놔두어도 큰 피해가 없는 것이 대개의 점무늬병이다.

과신은 금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한 말을 기억하는가? 점무늬병도 심하게 발생하면 식물을 쇠약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만약에 화반의 모든 잎들에 점무늬병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든지, 점무늬가 생긴 잎사귀들이 계속하여 낙엽진다면 하연 적당한 작물보호제를 선택하여 사용설명서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는 것이 좋다.



사진11.



사진12.



[rust, 一病]

사과나무 · 배나무 · 담배에 발생하는 병해.



적성병(赤星病)이라고도 한다. 녹균의 일종인 *Gymnosporangium* 속(屬)의 병원균에 의해서 보통 4~7월에 걸쳐 발생한다. 사과나무 · 배나무 잎에 얼룩점 무늬의 작은 황색 무늬가 생기면서 이것이 커져 커져 적갈색 얼룩점이 된다. 잎의 뒷면은 약간 솟아오르고 털 모양의 돌기가 생겨 여기에서 녹포자가 나온다. 녹포자는 중간숙주인 향나무류에서 발아하여 기생 · 월동한다. 담배의 붉은 병무늬병은 *Alternaria longipes* 균에 의해 발생한다. 증세가 악화되면 잎씩 낙엽이 지게 되므로 피해가 크다. 중간숙주인 향나무류를 제거함으로써 방제할 수 있다.

SUCCULENT PLANT

다육식물 재배 준비물

다육식물을 재배하다보면 이것 저것 필요한 것도 많고 필요에 따라 자기가 손수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꽃꽂이나, 분재, 난과 같이 Set로 판매하는 것도 있으나 아직 다육식물 취미재배가를 위한 Set 상품이 없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배양토를 만들 때처럼 큰 삽이 있어야 되며 화분에 용토를 담기위해서는 꽃삽 같은 작은 삽도 필요하다. 가지를 정리하거나 삽수를 자를 때, 뿌리를 정리할 때는 끝이 뾰족한 과수용 적과가위가 편리하다. 집을 붙일 경우와 같이 칼도 이마급 사용되기도 한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핀셋도 풀을 뽑거나 낙엽이진 잎을 정리할 때 사용된다. 나무젓가락도 삽수를 심을 때와 같이 요긴하게 사용되며 대나무 젓가락을 화분에 꽂아두면 젓가락의 젖은 상태로 관수의 시기를 어렵잡기도 한다.

물조리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관주하기도 하지만 호스 끝에 살수기를 달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1~2 리터 짜리의 작은 스프레이는 병해충의 방제에 사용되며 최고 최저 온도계는 베란다 같이 햇빛이 뜨거운 곳에 설치하여 너무 온도가 올라간다면 차광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달아 주어 시원하게 해주어야하며 특히 장마철 습기가 많은 계절엔 환기에 각별이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작은 돋보기라도 있다면 씨앗을 뿌린 후 발아의 정도를 관찰할 수 있고 병충해의 관찰에도 좋다.



Crassula ovata(염좌)의 번식 1

Crassula ovata(염좌)의 번식 2



Crassula ovata(염좌)의 번식 3



Crassula ovata(염좌)의 번식 4



Crassula ovata(염좌)의 염좌 건조중 10일 경과



가지를 커팅한 후 15일(부유)



가지를 커팅한후 1개월 후(염좌)



다육식물재배준비물

글 사진 강석정
호자원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전용의 용토를 판매하고 있지를 않기에 배양토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한다. 직접 만드는 것이 취미 재배에 유리한데 구찮지만 한번 만들 때 여유 있게 만들어 남은 것은 자루에 담아 보관한다. 굵은 모래의 미분을 제거하려면 작은 체를 고운것과 거친 것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다. 고운 것은(1~2mm) 미분을 선별하고 거친 것은(7~8mm) 화분 밑에 조금 깔면 배수에 도움이 된다.

다육식물에 이름표를 (Pot stake)를 꽂아 학명(scientific name)이나 일반적인 이름 (common name), 교배종은 무엇을 교배 했는지 등을 기록하여 두면 재배에 용이하며 재배노트를 만들어 틈틈이 기록하여 두면 재배력도 향상되고 보다 더 과학적인 취미생활을 할수 있다고 본다.

화분도 크기별로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구분하여 인근의 도매상에서 구입하였다가 사용하면 편리하고 사전에 미리 자기 자신에 맞는 화분재질을 선택하여 재배하면 물 관리도 좋고 일률적이라 편리하다. 용기분, 토분, 세라믹분, 플라스틱분을 섞어서 사용한다면 화분수가 늘어나면 난잡해지고 관리하기도 어려모로 불편하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곳은 다육식물을 재배하기에 좋은데 한낮에 강하게 비추는다면 차광을 해주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50~60% 차광망을 커튼처럼 사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열어 놓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취미로 재배하면서 꽃이 피면 수정을 하여 종자를 수확하고 파종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급(?)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종자를 파종하려면 주로 삼목판을 이용하는데 유리나 비닐로 밀폐시키는 것인지 빛을 차단할 것인지 또 언제 온도를 몇도를 유지해야하는지 등의 사전 지식은 미리 알고 있어야한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준비물을 알아보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매니아끼리 동호회라도 만들거나 인터넷 카페라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한다면 취미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카페들이 판매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안타까운데 취미생활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것을 명심하길 바랄 뿐이다. 다육식물에 대한 애착도 없이 돈으로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으나 머지않아 그런 사람은 다른 취미를 찾아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 분명하다.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더라도 예쁘고 아름답게 기를수 있다.



염좌으로의 대량번식



염좌한지 1년(녹귀관)



염좌한지 2개월(이메시스)



염좌한지6개월(홍대하금)



화분에 이식 할 시기(이메시스)

호자원 다육식물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원리
T 010 5345 5702

비타민의 보고 고추(Hot pepper)

고추는 그 원산지가 남아메리카로 2,000년 전부터 페루에서 재배되었으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전파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주산지로는 중국, 터키, 나이지리아, 스페인, 멕시코, 태국 등이다. 고추는 우리 나라에서는 1년생 식물과 같이 해마다 씨를 뿌려 다시 심어 가꾸지만 원산지 또는 열대 지방에서는 다년생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고추에는 우리가 즐겨먹는 매운 고추와 매운 맛이 없는 단고추인 피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망은 주로 중국요리나 샐러드용으로 이용된다. 고추의 매운 맛은 매운 정도나 맛이 품종, 재배하는 나라 등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고추는 대부분 매우면서도 단맛이 나는 고추지만 필리핀이나 특히 태국,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먹는 고추는 단맛이 없고 맵기만 한 고추이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잦아진 때에 호박, 담배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1614년 이수광이 저술한 백과사전인 <지봉유설(芝峰類說)>에 고추를 가리키는 '남만초(南蠻椒)'의 기록이 있으며 '남쪽의 아만인들이 먹는 후추'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수광은 그 도입경로가 왜국(倭國)이라 하여 왜개자(倭芥子)라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고추는 음성의 중공초, 영양의 수비초, 지방 이름을 딴 임실재래, 신명재래, 밀양재래, 청도재래 등과 맵기로 유명한 청양고추를 꼽는다. 그 외에도 고추의 모양이나, 달리는 형태를 고려하여 불려온 성남의 쇠불고추, 영덕의 하늘초, 영천의 칼초라는 토종도 있다.

채소 총재배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고추는 연간 17만 톤이나 생산되며 조미료 및 식용, 김장용, 고추장용 등으로 이용된다.

고추가 자닌 비타민 C의 함량은 사과와 약 18배, 온주 밀감의 약 9배 정도나 된다.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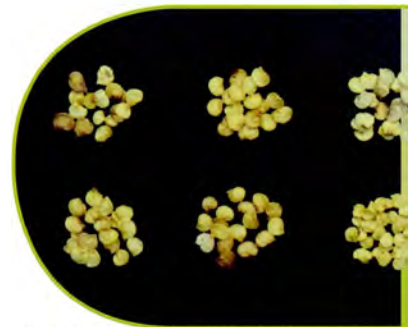
대화초



고추꽃



돼지고추



(왼쪽부터)돼지고추, 임실새래, 수비초, 밀초, 칠초, 쇠불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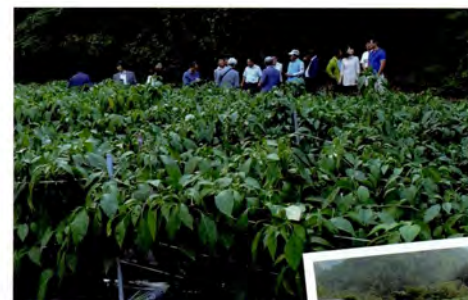
유명초



음성재래

대학시절 채소원예학을 가르쳐 주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표천구 교수님께서 "비타민 C는 하루에 풋고추 3개만 먹으면 해결이 된다네." 하시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 고추에 들어 있는 알카로이드인 캡사이신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약리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의 근대 제약산업 이후 내려오는 활명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소화제 속에는 고추의 매운 맛으로부터 추출해 낸 Capsicuminc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다. 고추의 매운 맛이 위벽을 자극하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의 운동을 돕는 것이다. 또 캡사이신이 감기나 기관지염, 가래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미국 학계에서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감기에 걸리면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끓인 콩나물국을 먹고 꼭 쉬어야 한다는 민간요법을 만들어 낸 선조들의 그 지혜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영양의 한 농가 수비초 고추밭 1



영양의 한 농가 수비초 고추밭

고추(Hot Pepper)의 효능

고추의 주된 성분인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또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 효능을 알아보자.

1. 근육긴장을 자극시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면서 심장박동수를 증가,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2. 소화시 위액 분비를 증가. 식욕부진을 해소, 탄핵질 소화를 촉진시키며 유류 섭취에 도움을 준다.
3. 캡사이신의 효과로 지방분해 및 비만예방에 도움을 주며 다이어트 식품으로 표적적이다.
4. 비리인 C가 오렌지의 2배, 포도자의 8배인 90mg이상이 들어있다. 하루 고추2개만 섭취하여도 비리인 C 일일 권장량을 충족하는 셈이다. 또 한국인의 기본 소스인 된장과 함께 먹을 때에는 장염효과를 볼 수 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칠성초와 수비초

칠성초



수비초

영양과 인동이 갈라지는 섬거리인 청송군 진보면 원전리에 서 31번 국도로 다시 27km쯤 되는 곳에 뒤로는 병풍처럼 펼쳐진 칠성봉(七星峰)을 하고 있는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가 자리잡고 있다. 동리 바로 뒤에 있는 산의 모양이 반달 같은 반월마을은 입구부터 빨갛게 익어 풍요롭게 매달린 고추밭으로 시작된다. 생김 모양이 배가 통통하고 굵고 커서 '배불덕이' 또는 '붕어초'라고도 불리는 이 고추는 칠성리에서만 잘 되기 때문에 칠성초라고 부른다.

이 동리에 살고 있는 최용성(53세) 씨와 김덕형(53세) 씨, 친구사이인 이 두 사람은 칠성초 자랑이 대단하다. 맵고 단맛이 있으며 껍질의 살이 많아서 말리면 고춧가루가 많이 나므로 대구,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영양태양초(칠성초를 태양건조)를 대부분이 전화주문으로 처분된다. 칠성초의 인기가 워낙 좋아서 타지의 농사꾼들이 종자씨앗을 받아가지지만 이곳에서처럼 잘 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니,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심겨져 온 이 칠성초가 이 고장과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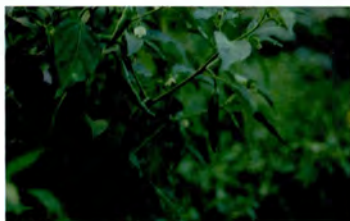
칠성리에서 10여km쯤 평해 가는 지방도로 924번 도로로 접어들면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가 멀리 보인다. 해질 무렵이면 마치 이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이곳이 예부터 유명한 고추 영양 수비초의 주산지이다. 수비초는 칠성초보다

날씬하고 길며 맵고 단맛이 난다. 황경환(48세) 씨는 수비초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우리 농촌황아씨가 오래 전에 아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친구가 타지에 나가 살다가 돌아와서도 돈 갚을 생각은 않고 붉은 고추 세 개만 갖다 주었는데도 고추가 크고 보기도 좋고 해서 다음 해에 심었는데 잘 되고 맛이 있어 차차 소문이 나서 가을이면 근처 동네에서 고추씨앗을 사러 몰려들기 빌려준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빌게 되었고 그것이 이웃 수비면의 이름을 따서 수비초가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껍질이 두껍고 가루가 많이 나는 편이어서 이웃 동리는 물론이고 면에서도 다 심었는데 이제 종자회사에 새 품종이 보급되면서 차츰 줄어들어 이제는 이 동리 말고는 주위동리에서도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수비초는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눈물이 쏙 빠지는 청양고추



청양초

청양고추를 찾기 위해 청양읍에서 공주 쪽으로 25km쯤 칠갑산 공원을 오르쪽으로 끼고 36번 도로를 지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칠갑산 천장호 주변의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돼지갈비를 시켜 놓고 앉아 있는데 오래 따라 나오는 작고 가는, 별로 맵지도 않아 보이는 고추가 나왔기에 된장에 찍어 맛을 보았다. 그런데 별맛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고추가 단맛이라고는 하나없이 눈물이 나오도록 매웠다. 한참 동안 눈물을 짜내다가 주인에게 물으니 그 작은 고추가 바로 청양고추란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난 해 12월, 히말라야 산맥의 안나푸르나로 유명한 네 팔에 식물유전자원을 수집하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났다. 우리 수집단은 뜻있는 민간회사인 한테통상의 도움으로 카트만두의 회사 사무실 겸 숙소에서 며칠 묵기로 하였다. 그곳에서 준비해 준 한식으로 저녁만찬을 하게 되었다. 밥, 김치, 고추장, 양배추복음... 등 몇 가지 한국식 음식 중 가장 먼저 손이 간 곳은 김치였다.

그런데 한 입을 먹은 그 뒷맛이 밥맛을 망쳐 버렸다. 오랜만에 먹는 김치였지만 다시는 그쪽으로 손이 가질 않았다. 한국김치처럼 붉게 하려고 매운 네팔고추를 잔뜩 넣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날 아래층에 살고 있는 박익원 맥에서 가져온 김치맛과는 천지차이었다. 고춧가루만 빼고는 저녁만찬 때 먹었던 김치와 다른 재료는 모두 같았단다. 역시 한국사람 입에는 단맛이 있으면서 매운 맛이 나는 우리의 고추라야 하고, 네팔, 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종자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맵기만 한 그들 입맛에 맞는 고추품종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것이다.



청양고추

점심 후 칠갑산 입구 동리인 미당리에 도착하여 청양고추를 비닐하우스 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심는다는 오승균(41세) 씨를 찾았다. 그러나 오승균 씨가 심은 고추는 모두 F 품종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맵고 작은 청양고추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오승균 씨가 말하는 청양고추는 보통 채소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품종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청양고추처럼 가느다르하지만 끝이 약간 몽툰한 형인데 덜 맵고 키도 작단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진짜와 비슷하면서도 수량이 높은 지금의 개량종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오승균 씨가 어린 시절에 보아왔던 청양고추의 재배법은 이른 봄 땅이 녹을 때쯤 보리밭에 씨를 뿌려 놓고 쇠스랑으로 긁어 흙을 덮고 싹이 나면 비로 주고 가꾸어 왔다고 한다. 고추가 매운 편이고 맛이 있어서 많이 재배했었는데 수량이 적어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에서 먹으려고 몇 골 심었다가 씨하려고 고추를 광에 매달아 놓았더니 쥐에게 좋은 일하고 씨만 밀렸더 쥐가 먹다 남은 껍질에 붙은 씨앗 몇 개를 보여준다.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몇 알의 씨앗이라도 싹이 나서 본래의 청양고추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집봉투에 잘 넣어 돌아왔다.



유월초



칼 초

태양초가 된 수비초



토종고추



하늘초

안완식박사의 토종재료 레시피

풋고추찜

풋고추찜은 고추향이 식욕을 돋워 어른들의 반찬이나 술안주로 많이 이용한다.

재 료 : 풋고추 200g, 밀가루 1컵, 소금 1큰 술

양념장 : 진간장 2큰 술, 고춧가루 2큰 술, 깨소금 참기름 조금씩, 다진 파 1큰 술, 다진 마늘 1작은 술

1. 풋고추를 큰 것은 길이로 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작은 것은 그대로 사용한다.
2. 밀가루에 소금을 넣고 풋고추를 넣어 고루 묻힌다.
3. 찜통에 젖은 베보자기를 깔고 2를 고루 퍼서 찜다.
4. 그릇에 담아 양념장과 함께 내거나 미리 버무려서 내기도 한다.

※ 잔 풋고추나 파리고추를 이용하면 맵지 않아 어린이도 즐겨 먹을 수 있으며 맵고 억센 고추는 소금물에 며칠 삭히면 연해진다.
※ 살짝 찌내야 고추의 색과 향이 살아있어 식욕을 돋우며, 찌낸 고추를 그대로 말렸다가 겨울철에 튀겨 먹어도 저장식품으로 좋다.



고춧잎김치

첫서리가 내리기 전 고춧잎을 모두 따서 절임이나 김치로 담가 놓으면 다른 채소보다 비타민 함량이 높고 저장성도 좋아 겨울철 밑반찬으로 좋다.

재 료 : 고춧잎 200g, 소금 3큰 술, 멸치젓 1/2컵, 설탕 1큰 술

양념장 : 다진 마늘 2작은 술, 다진 파 3작은 술, 생강 다진 것 1작은 술, 진간장 1큰 술

1. 고춧잎은 깨끗하게 씻어 소금물에 15~20일 정도 담가 둔다.
2. 고춧잎이 잘 삭았으면 물에 깨끗이 씻어 체에 발친다.
3. 물기를 뺀 고춧잎에 멸치젓국을 붓고 파, 마늘, 생강 다진 것을 넣고 설탕, 진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김치 항아리에 담아 익혀서 먹는다.



고추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확산 작용과 조화 작용을 일으킨다.

확산 작용이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위장을 튼튼히 하는 것으로 위장의 활동을 도와 위액분비와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추는 동성이나 감기를 고치고 식욕부진과 스트레스를 풀어, 신경통이나 마비증 등에도 매우 훌륭한 약재로 쓸 수 있다.



4 Season 원예용 가위

우수한 품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합리적 가격



다목적가위

원예뿐 아닌 공구, 피혁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절삭력 등 핵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가격: 10,000원대



적과가위

과실 수확용, 과실의 상처없는 수확을 위해 한 번의 손길로도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절삭력 강화에 강점을 둔 제품, 가격: 7,000원대



전지가위

가지치기에 사용되는 제품 최소한의 힘으로 편하게 가지를 자를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스프링구조의 제품, 가격: 13,000원대



양손가위

조경용, 조경 작업에 최적화된 날 길이 및 무게를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가격: 30,000원대

포시즌 원예용 가위 4종(전지 가위, 적과 가위, 양손가위, 다목적 가위)은 우수한 절삭력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제품으로, 많은 원예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원예용 가위 4종은 날 부분을 고급 소재로 활용하고, 정밀한 연마기술을 통해 절삭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날 부분을 표면 연마 및 크롬 플레이팅(Chrome Plating) 기술로 처리해 이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는다.

제품 관련 문의: 도루코리빙 080-022-3211(소비자 상담실)



채소정원

Vegetable Garden

>> 사과참외(Cucumis melo var. makuwa)



1950년대까지 재배된 토종참외이고 맛은 멜론 맛 비슷하며 모양은 밑이 평평집하고 색깔은 은색, 노랑, 녹색으로 다양하다. 보통 재배되는 참외 보다 장마에 강하다. 물 빠짐이 좋은 땅이 자라기에 좋다.



>> 가지(Solanum melonge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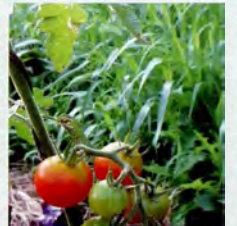
가지과의 일년초로 보라색 꽃이 피고 열매도 보라색이다. 꽃을 봐서 암술머리가 수술보다 길게 나와 있으면 건강한 토양을 의미한다. 보라색 열매가 여름 더위에 좋아 볶아먹거나 가지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 피망(Capsicum annuum cvs)



무게가 있기 때문에 크는 데로 바로 따서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 여러 개의 피망이 달려 있으면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지주를 해주어야 한다.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cvs)



방울토마토와 큰 토마토 등 600여 종류의 토마토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종류를 골라 심으면 되고, 자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교잡이 되지 않아 자가채종하여 종을 유지하기에 좋다. 토마토는 피자소스, 스파게티소스, 케첩에 이용되고, 익지 않은 토마토는 피클이나 장아찌로 담가 먹을 수 있다.

>> 오이(Cucumis sativus cvs)



수분이 많아서 여름의 갈증 해소에 좋으며, 등산 갈 때 필수 채소 중 하나이다. 여름햇빛에 타서 따가울 때 마사지 해주면 좋다. 개인적으로 마디 오이보다 안산오이(토종오이)가 크기는 작지만 맛이 훨씬 좋다.

>> 애호박, 쥬키니(Cucurbita cvs)



몸에 붓기를 빼주고 쥬키니는 일본사람들이 좋아한다. 애호박은 전으로 부쳐 먹고 쥬키니는 수분이 많아서 볶음용으로 먹는다.

정원관리

Garden Maintenance



9월말은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구근을 심기에 좋은 시기이다. 구근의 깊이를 어떻게 심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구근의 2-3배를 깊게 하면 된다고 한다. 기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왕실원예협회 The Garden(2010.10월지)의 사례를 들어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본다.

보통명(학명)	깊이(cm)	보통명(학명)	깊이(cm)
문주란(<i>Crinum</i>)	지면보다 조금 높이	콜치쿰(<i>Colchicum</i>)	10
아마릴리스(<i>Amaryllis</i>)	지면	무스카리(<i>Muscari</i>)	10
시클라멘(<i>Cyclamen</i>)	지면 바로 아래	나도샤프란(<i>Zephyranthes</i>)	10
블루벨(<i>Hyacinthoides</i>)	8	글라디올러스(<i>Gladiolus</i>)	10-15
무릇(<i>Scilla</i>)	8-10	히아신스(<i>Hyacinthus</i>)	12-15
크로커스(<i>Crocus</i>)	8-12	수선화(<i>Narcissus</i>)	20
설강화(<i>Galanthus</i>)	10	백합 또는 나리(<i>Lilium</i>)	구근의 2-3배



일반적인 관리(Regular Maintenance)

- 제초관리
- 잔디에 구멍을 파고 모래와 퇴비를 섞어 뿌려주고 죽은 부분에는 잔디 씨를 뿌린다.
- 배수관리(장마철 물이 고이지 않게 해준다)
- 이른 봄에 꽃을 보기위해 수선화 구근을 심는다.
- 시든 꽃 따주기 (다알리아, 사루비아 - 서리 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 옮겨심기: 심을 장소에 퇴비를 넣어 준비해두고 10월 말에 옮겨 심는다.
- 화분에서 기를 수 있고 일찍 피는 구근(튤립, 크로커스)을 심는다.

번식(Propagation)

- 포기나누기
 - 분주 : 맥문동, 소엽맥문동, 여러해살이 초본,
 - 반속지삼목 올해 자란 약간 딱딱한 가지삼목

전정(Pruning)

- 상록 경계수는 마지막 전정을 한다.
- 나무의 죽은 가지나 상처 난 가지를 잘라준다.

수확(Harvesting)

- 씨앗 받는 방법
 - 열매꼬투리가 갈색으로 변하면 씨앗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 열매를 자르기 전 식물이름, 날짜, 장소, 채집자를 기록지에 적는다.
 - 열매를 자르고 햇빛에 잘 말린다.
 - 열매를 두드리거나, 비비거나, 가꾸로 들면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을 받아 채집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





술개그늘 유봉수 대표



Q&A Question and Answer

Q 1. 감성철 채소를 작파 파종법을 알려주세요.

감성철로 작파를 심을 때에는 심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심으면 구가 너무 커지고 늦게 심으면 생육이 부진하여 이용부위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8월 하순에서 9월상순경이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꼭파는 정식후 약 4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꼭파의 흰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8월 중순에 심어 북주기를 2~3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9월상순경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꼭파의 총구는 뭘 수 있으면 구가 크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골라 심어야 자람도 좋고 수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총구의 크기는 5g이상 것을 한구덩이에 2~3개씩 심되 포기사이 10cm 출사이 20cm 깊이는 2~3cm로 심어야 합니다.

뿌리 활착을 좋게하기 위해 심으신 후 뿌리근이라는 액비를 살포해주시면 활착도 빨라지고 자람세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재배시 해충은 별로 문제 되지 않지만 비가 자주오는 해는 흑반병이 발병될 수 있으니 적용약제를 미리미리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 고추 끝이 물러지는데 대책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추 끝이 물러진다는 것은 식물이 석회비료를 흡수하지 못해 과실에 나타나는 생리장해 피해증상입니다. 병명으로는 흑미병(黑微病)이라고 합니다.

피해증상은 초기에는 고추 끝 한쪽이 불에 덴것처럼 물렀다가 곰팡이에 의해 검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심한 포장은 새순이 노랗게 나오다가 더더욱 심하면 끝이 검게 고사되기도 합니다. 아래 잎은 흰반점이 생기며 컨디션이 나빠져 떨어지게 됩니다. 석회비료를 충분히 준 포장이라 하더라도 물빠짐이 안 좋거나 너무 건조한 포장. 토양속에 온도(地溫)가 너무 낮거나 높게 되면 작물이 석회비료를 흡수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포장에 친물을 오랜시간 주어 지온이 떨어진다거나 날씨가 더운 시기에 지표 부근에 고여 있던 물의 수온이 높아져 토양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석회비료 흡수가 안될 때, 또는 고추 역병 방제를 위해 너무 높은 이랑재배를 하여 토양수분이 부족하거나 덜 부숙된 유기물을 과다 사용하여 토양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피해증상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석회비료가 부족하게 되면 토마토의 배꼽이 썩거나, 무우속이 검게 변하게 되며, 배추는 줄기에 검은 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포도 열매가 새논처럼 검게 변하는 것도 일종의 석회결핍증상입니다.

예방법은 첫째 재배포장에 물빠짐을 좋게 해줄 것이며 배수가 나쁜 포장은 두둑을 높게 하여 작물을 심고 검은 비닐을 바닥 위에만 올려 놓으시고 고추 두둑을 공공 싸매지 않아야 합니다. 가뭄이 심하여 물주기를 할 때 갈슘비료를 물에 타서 같이 주거나 엽면시비를 권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토양수분이 일정하도록 빗집이나 풀 또는 검은 비닐을 피복하여 재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 3. 칠점무당벌레보다 28점무당벌레가 좋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잘못아셨네요 칠점 무당벌레는 이로운 벌레지만 28점무당벌레는 작물에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해충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무당벌레는 약 100여종이 있습니다. 대개의 무당벌레는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진딧물을 잡아먹고 사는 이로운 해충이지만 일부의 무당벌레는 식물의 염육을 갈아먹고 사는 해로운 벌레입니다. 진딧물을 잡아먹고 사는 칠점무당벌레는 등쪽에 둥근점이 7개가 있다 하여 칠점무당벌레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등색깔이 누런색을 띠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붉은색 바탕에 검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물에 가보신 분이라면 감자나 까마중이라는 식물의 잎이 그 물모양으로 변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28점 무당벌레의 피해 증상입니다. 무당벌레는 외부로 보기는 아름답지만 접촉시 냄새가 지독하여 필자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중 한 종류입니다.

Q 4. 농약류 즉일 이류 선택은 가능한가?

그렇질 않습니다

농약에 대해서는 지난달 원고에 자세하게 게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약의 종류는 이름도 다양하고 쓰임새도 광범위하여 쉽게 설명드릴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농약을 분류함에 있어 유기농약과 무기농약이 있는데 유기농약은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등 자연물에서 추출한 것이고 무기농약은 화학성분을 원료로 인위적으로 조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농약이다 나쁜농약이다 분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느 농약이든 표지에 사용 시기,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 설명서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면 언제든 선택이 가능하니 안전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Q 5. 클라디올라스는 겨울철에 절충이 가능한가요?

절충이 어렵습니다.

서리가 내리기전 구근을 캐어 감자처럼 냉암소에 건조저장 하 였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 합니다. 봄에 심는 구근 식물을 춘식구근이라고 합니다. 클라디올라스, 다알리아, 칸나, 칼라, 글록시니아, 아마릴리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봄에 심어 여름~가을에 걸쳐 꽃을 감상한 후 서리가 내리는 가을에는 캐어 톱밥이나 모래에 섞어 얼지 않도록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심는 것입니다. 화분에 심었던 것이라면 캐지 않고 얼지 않게 관리하면 이듬해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Q 6. 과마 순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과마가 잘 생기기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마 순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찍 심어 저온피해를 받아 줄기에 결순이 많이 나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발에 질소성분이 너무 많아 덩굴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인지를 말입니다. 고구마는 식물분류학상 괴근 즉 덩이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덩이뿌리(고구마, 순무)나 덩이줄기(감자)를 이용하는 식물은 칼리비료의 흡수가 매우 많아야하는데 질소성분이 많거나 유기질 퇴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면 덩굴이 무성해져서 뿌리가 잘 비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순이 많이 나왔다면 너무 일찍 정식하여 뿌리가 냉해피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구마는 냉해피해를 받게 되면 결순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뿌리 발육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Q 7. 개똥쑥을 가끔 끊어 마시는데 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개똥쑥의 좋은 유효성분을 효과적인 섭취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전체에 채취하여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똥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싹을 채취하여 씹으로 이용하거나 나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다 이용할 수 없기에 채취하여 간장이나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이용하는 것이죠. 모든 식물은 어린새순이거나 꽃이 필 무렵에 가장 많은 양분을 비축하게 됩니다.

국화를 담그거나 차로 이용하기 위해 국화를 채취하는 시기가 꽃봉우리가 필 무렵인 것이며, 약용으로 이용하는 개똥쑥의 채취시기도 꽃이 필무렵인 것입니다.

식물의 성분은 물에 녹아 나오는 것도 있지만(수용성) 대부분 지용성으로 기름이나 열(녹차,민들레,동굴레)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진답니다.

개똥쑥이나 산초, 국화에 들어있는 성분은 열에 의해 용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나 알콜에 의해 용출됩니다.

개똥쑥의 잎줄기를 잘 말려서 병에 담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유(올리브유)를 부어 성분을 우려낸 후 음식 만들 때 이용하면 아마도 좋은 섭취가 될것입니다.

Q 8. 가을이 오면서 알려지 (비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식물과 음식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알레르기란 특정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으로 유전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

필자는 환경요인이 우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연기나 매연등으로 공기가 탁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정상인 사람도 재취기를 심하게 하거나 자주 코를 푸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요

알레르기는 우리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게되면 일반사람들도 열량소모를 위해 몸속에서 산소를 평소보다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며, 비염이 있는 사람이 환절기에 숨쉬기를 자주하게 되는 것도 오염된 공기로 인해 우리몸속에서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여 발

생하는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레르기는 특히 오전중에 증상이 심한데 이는 대기중에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어려서부터 선천적인 비염환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적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료수는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잘 가지 않는 편입니다. 환절기에는 절대 음식을 과식하지 않으며 열량이 높은 고기도 잘 먹지 않는 편입니다.

베란다에는 야간에 산소의 배출량이 많은 200여개의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으며, 실내온도를 평소보다 2~3℃ 낮게 관리하며 자낸답니다.

Q 9. 식탁에 화려로운 장미꽃이 배열이 시도는데 좀더 오래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있습니다.

화병에 꽃을 꽂을 때는 수돗물보다는 산소분자량이 많은 물을 부어보세요 수돗물에 약수를 몇방울 떨어뜨려 넣거나 소다수를 만들어 부어도 되고 사이디를 휘석하여도 아주 오래동안 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외출을 할 때는 깊은 그릇에 장미를 옮겨 장미목까지 물이 차도록 담가놓으시면 좀더 오랜시간 동안 꽃을 감상하게 될것입니다. 금반지나 목걸이등 금으로 된 장신구는 양파즙에 담그었다 부드러운 걸레로 문질러 닦아주면 새것과 같이 윤이 나며 더러운 양은 냄비에 사과 껍질을 넣고 끓여 주시면 새것과 같이 된답니다

Q10. 여울목의 술개그들이 묵었하는 곳인가요?

“여울목의 술개그들”은 규연에이 작가가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이름입니다.

여울목은 작가의 닉네임으로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수되는 곳으로, 빠르게 흐르는 썬 물살은 긴 세월 동안 바닷 돌을 둥글게 만들었고, 돌과 어우러진 물살은 늘 언제나 사랑을 노래하며, 계절별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심포니 장소를 뜻



합니다. 술개그들이란 하늘에 떠 있는 술개의 그림자처럼 아주 작은 그들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침터인 것입니다.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년동안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교육하고 현장지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농기사자격증을 갖고 농업(귀농)상담, 종자 및 묘목, 지역농특산물(별꽃, 프로폴리스, 화분가루) 제4종 복비 및 특수비료, 화원(일반화분,다육식물)과 약용작물을 이용한 약선요리를 맛도 보고 직접 만들어 갈수 있는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독자님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고 싶으니 찾아주시거나 전화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농민식물을 통해 3년 동안 재배해온 오리지널 약제 백도라지와 슈퍼도라지 묘근 판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재배포장도 직접 둘러 보시고 수확한 백도라지를 눈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도 서너 뿌리만 사다 심어도 수익이 있음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Q11. 비를 드izzle하여 나온 것을 쌀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것을 현미(玄米)라고 하고 어떤 것을 백미라고 부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천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 이천쌀은 보기에도 좋지만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자르르 흘러 먹어보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보다 맛이 좋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논에서 바로 탈곡한 것을 벼 또는 나락이라고 부릅니다.

수확한 벼(나락)는 수분이 많아 저장하기 좋게 바로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벼의 껍질을 왕겨라고 하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현미(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보면 왕겨가 25%이고 현미(쌀)는 75%로 입니다.

현미는 1회(나락)에서 왕겨만 벗겨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미는 겉껍질만 벗겼기 때문에 양분은 많지만 섬유질이 붙어 있어 밥을 지었을 때 거친 느낌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현미를 100으로 놓고 깎는 % 대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1% 깎아(도정)내면 1분도미 2%를 깎아(도정)내면 2분도미 3%를 깎아(도정)내면 3분도미라고 합니다. 우리

가 백미라고 하는 것은 7%를 깎아(도정)내면 7분 도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정시 부산물로 나온 것을 쌀겨라고 부르며 이 쌀겨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겨에는 미백효과와 성분이 들어있어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백미보다 현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쌀보다 필수아미노산 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산,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채보다 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암 예방에도 좋고 인체에 흡수된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현미를 선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쌀은 멥쌀과 찰쌀이 있는데 밥을 지었을 때 찰기가 많으면 찰쌀적으면 멥쌀입니다. 찰기는 쌀의 성분 중에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아밀로오스나 아밀로펙틴은 둘 다 포도당이며 둘 다 소화와 흡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멥쌀은 20%의 아밀로오스와 80%의 아밀로펙틴을 함유하고 찰쌀에는 아밀로오스는 거의 들어 있지 않고 아밀로펙틴 성분 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속적으로 맛있는 밥을 드시려면 구입한 쌀을 필수있는한 냉장고나 냉암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미는 반드시 희끗하게 색을 발아시켜 밥을 해드셔야 양분흡수가 잘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에서 생산된 유기농 현미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6-1번지
연락처 : 010-5289-2568, 010-5274-2569

산청한방약초축제

축제기간 : 2014. 10. 2 ~ 10. 9
 행사주최 : 매년(10월)
 장 소 : 산청 IC입구 축제광장 및 동의보감촌 일원
 축제주관 :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연락처 : 055-970-7702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1,000여종의 토종약초가 자생하는 청정 약초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이며,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 선생과 그의 스승인 신의류의대 선생 등 수많은 명의들이 활동한 전통 한방의 고장으로서 이러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매년 10월초에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제14회를 맞이한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지리산의 자생약초와 한의학의 신비한 효능을 체험할 수 있고, 약초를 이용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제공과 한방무료진료 체험 및 한방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산업선도형 웰빙관광 축제입니다.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The 14th Sancheong Medicinal Herb Festival



2014.10.2(목)~10.9(목)
 산청 IC입구 축제광장 / 동의보감촌 일원

주최 산청군 주관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약초의 효능



구기자

구기자는 맛이 달고 쓰며, 약의 성질은 따뜻하지만도 차갑지도 않은데요. 독이 없으며 비타민c, 니코틴산, 지방, 회분 등을 다량 함유.

1. 간장질환에 좋으며, 구기자는 간세포내의 지방 침착으로 억제하여 간세포의 산생을 촉진하는 작용. 특히 알카로이드인, 베타인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 간기능을 보호.
2. 영양실조증, 노쇠, 병후허약, 만성소모성 질환에 의한 소약에 효과적.
3. 허약, 다리가 새큰거리고 힘이 없어 보행시에 금방이라도 쓸어질 것만 같이 요퇴부가 무력한 경우, 또는 정맥이 저질로 흘러 내릴 경우, 냉증에 효과.
4. 구기자는 노인성 백내장 초기로 눈이 아찔거리고, 시력감퇴될 때 구기자를 장복하면 효과적.
5. 항균효과, 항암효과, 면역 증진효과, 간기능 개선과 혈압강하 및 항당뇨 효과,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미용효과.

금강화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 경북에서는 '까마귀 오줌통, 머느리취로도 불립니다. 금강화 맛이 쓴 맛으로 시어머니가 미운 머느리에게 먹인 꽃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몸에는 이로운 약초로 한약재임. 시골 산골에서는 나물로도 즐겨 먹는 식물로 꽃의 모습이 주머니를 닮아 금강화로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금강화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니다. 금강화의 어린잎은 나물로 식용, 목 나물로도 맛이 일품, 하지만 아름다운 금강화 꽃을 생각하면 나물로 식용하기에는 왠지 아까워 먹을 수 있을지. 금강화의 효능- 전초를 채취하여 말린 것은 금강이라 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고 소종의 효과가 있어 타박상이나 종기 등의 치료에 효능. 또한 전초와 뿌리에는 해열작용과 마취작용을 나타내는 디펜테린과 프로토펜을 함유하고 있어 진통, 진정 효과가 있어 전초를 달여 위통을 다스리는데 사용



금강화



당귀

당귀는 한약재 중 보혈제의 대표적인 생약으로 혈을 보하여 주고 청열작용과 열의 흐름을 줄게 한다. 그래서 빈혈이나 어혈로 인한 혈행 장애에서 오는 동통증에 크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창외 연동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체내의 가스를 원활히 배출시켜 충분한 영양 흡수를 돕는다. 옛날 중국의 유명한 약리학자 왕일인은 이 생약이 난소의 기능을 자극 흥분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현대말로 배란을 촉진시킨다는 뜻. 또 출산 때 자궁강 또는 골반의 원만한 수축 혹은 확장을 돕는 작용도 뛰어나므로 부인병을 위한 약약으로 손꼽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당귀는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달고 매우며 독이 없다. 모든 풍병, 혈병, 허로를 낫게 하며, 곳은 피를 해치고 새피를 생겨나게 한다. 장벽과 부인의 봉루와 임신 못하는 것에 주로 쓰이며, 여러 가지 나쁜 창양과 쇠붙이에 다쳐서 어혈이 속에 뭉친 것을 낫게 한다. 이질로 배가 아픈것을 멎게 하며 온약을 낫게 하고 오장을 보하여 살이 살아가게 한다'라고 기록. 당귀는 월경불순, 월경정지, 신체 허약, 두통, 복통, 변비에 널리 응용. 당귀의 성분은 정유 및 피라노쿠마린계인 쿠르시놀, 데쿠르신, 나다케넨, 움벨리페론, 베타-시토스테롤 및 기타 수용성 불휘발성 결정물질 등을 함유.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물질과의 시너지 효과로 특정 효과의 증가 또는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게 경우가 있다. 당귀는 볶으면 혈을 보하고 월경을 순조롭게 하며 장을 순환하게 하는 효과를 증가시키고, 술에 구우면 어혈을 없애면서 혈의 순환을 돕는 효능이 증가된다. 흙과 함께 볶으면 혈이 부족하여 생기는 설사를 치료하고 까맣게 탈 때까지 볶으면 각종 출혈증상을 치료한다.



금불초

맥문동은 인체 진액이 부족할때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이며 완화 자양강장제로 진해, 거담, 해열에 사용하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 혹은 오래된 기관지염이나 폐결핵에 쓰고 심장 기능 허약 혹은 폐의 진액을 보충해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오래 앓아서 생긴 마른기침을 다스린다. 신체 허약에 원기를 돋우고 열성병의 구건증 등에 적용하고 아울러 최유제의 보조약으로 통유작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맥문동은 노인들의 좋은 보전 건강약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체력의 감퇴를 막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약재이다.

맥문동

생지황은 성질이 차고 수분이 많은 약재여서 혈액을 서늘하게 하고 열을 내리며 몸안의 진액을 생성. 몸안의 진액이 부족하여 허화가 뜨는 병증, 소갈, 허화로 인한 출혈증상, 구갈 등의 병증을 다스린다. 또한 생지황은 지황 낱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피를 맑게 하고 조직내에 침출된 어혈을 풀어주는데 더할 수 없는 명약이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타박상을 입어 멍들었을때 생지황을 찢어서 붙이면 뛰어난 효과를 본다는것은 잘 알려진 묘법이다

생지황

산양산삼은 삼속에 엄청난 힘을 잉태하고 있는 핵심 성분인 사포닌에 주목해야 한다. '당뇨'치료에 많이 쓰이는 음식들 중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는 산삼, 산삼은 한약재로 주로 쓰이며 산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풍부. 진세노사이드는 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로 당뇨를 개선 시켜주는 효과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 높은 혈당으로 고생하고 있다.

산양산삼

배초향 차는 은은한 솔향기가 나기 때문에 입냄새제거에 좋으며, 항균과 항암에 사용. 꽃이 필 무렵의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뒤 달여 먹는데 감기, 두통, 소화, 발한, 위염, 진통, 구토등에 효능. 비, 위를 보양하고 따뜻하게 해주며 구토를 멈추게 하며 식욕부진에 효과가 좋고 편태감을 해소, 소화불량, 설사에 매우 좋다. 배초향은 맛이 맵고 달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기분이 가라 앉아 있을 때 상쾌하게 해주며 위장의 기운을 보충해 준다. 가래, 기침,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들을 제거해 준다

배초향

금불초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학명은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Thunb.) Franch. & Sav이다. 원산지는 한국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만주, 아무르, 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 옷풀, 들국화, 하국이라고도 한다. 산과 들의 습지나 물가에서 잘 자란다.

금불초는 꽃이 예뻐서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로 정원에 심어도 좋다. 이른 봄에 어린순을 채취하여 나물이나 국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맵고 쓴맛이 강하므로 끓는 물로 데친 다음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 우려내고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다.

선복화는 감기로 인한 심한 가래, 상기증, 천식, 흉부의 덩(痰)으로 인한 협통과 기침, 명치 밑에 단단한 덩어리가 잡히는 증상을 치료하는 좋은 한약재다. 만성기관지염, 급성늑막염, 가슴이 항상 그득한 것처럼 답답한 증상, 입맛, 유암, 유옹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비위허한(脾胃虛寒)으로 인한 구토(嘔吐), 딸꾹질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이달의 영화 속 정원 테마

Fountain

분수

분수라고 말하면 우리는 큰 의미의 분수를 생각하지만 사실상 정원에서의 작은 분수들을 더 많이 보고 살아 왔다.

조그마한 돌조각에서 솟아오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일명 fountain 분수라고 한다면 말이다.

정원의 테마는 글을 게재하면서의 취지처럼 멀리 찾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서 찾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처럼 전혀 예상밖의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폰테인 처럼...

Synopsis

모든 것은 변신한다!



Transformers (2007)

사이아 라보프(샘 윌릿키), 타이레스(Sgt. 엡스), 조쉬 더하멜(캡틴 리눅스 역), 매건 폭스(마카일라 역)

샘과 외계인 생명체의 이야기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영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몇 있을까?
그리고 이 영화에 영향 받지 않은 광고, 매체물이 얼마나 될까?
여주인공의 교체와 또 여주인공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려주는 또 다른미의 영화.



정원 중앙부의 폰테인. 이를 중심으로 길을 만들어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샘의 아버지는 정원의 기둥이 되는 잔디를 가장 아낀다.



집 주변에 온갖 꽃과 식물들을 배치하여 자연미를 더했다. 그리고 그 자연속에 숨어있는 기계들.



집의 입구부터 꽃향이 나는 듯 하다.



샘의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분수대. 정원의 중앙을 지키고 있다.



파스텔톤의 꽃과 식물들이 원색으로 표현된 기계들과 대조적으로 비춰진다.

BOOK & FESTIVAL

추석연휴가 돌아왔다.

대체휴가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황금연휴. 이번 가을엔 아름다운 축제를 찾아가보자.

인천 드림파크 국화축제 2014

2014년 개최되는 <제1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국내외 국화작품들이 전시되며 올해는 특히 국화작품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간 2014.09.20 ~ 2014.10.05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주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문의 032-560-9971~4

<http://www.dreamparkcf.com>

순천만 갈대축제 2014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가 이곳을 찾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은 가을에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 중의 첫 번째로 손꼽힌다.

기간 2014.10.17 ~ 2014.10.19

장소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162-2

주최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문의 061-749-4007



익산 천만송이 갈대축제 2014

패밀리 힐링캠프 <2014 자라섬 불꽃축제>, 국내 난버벌 퍼포먼스 아웃도어 페스티벌이 화려한 불꽃과 함께 자라섬에서 개최된다.

기간 2014.08.14 ~ 2014.08.17

장소 가평 자라섬 서 · 중도

주최 동아일보, (주)벨류인베스트코리아/(주)벨류컬처앤미디어, CNK컨설팅

문의 02-588-6023

<http://www.kbbqf.com>

장성 백양 단풍축제 2014

노령의 정기를 담은 백양산의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인 비지나무 숲속의 천년고찰 백양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하순~11월초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한다

기간 2014.10.31 ~ 2014.11.02

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주최 장성군 축전위원회

문의 061-392-7502 <http://www.baekyangsa.kr>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세계속의 추석명절

한여름 무더위가 식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향기가 물씬 풍기는 계절이 되었다. 하늘은 높고 맑은 살결이라는 천고마비의 계절, 한 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군비의 계절이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기에는 하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듬해에도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추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 반대편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추석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한가위

날마다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둠을 밝히는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달빛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이다. 그 만월의 밤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고대에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로부터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해의 수확물을 함께 나누며 오늘날까지 전승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위에는 뽕쌀가루 반죽안에 팥, 밤 등을 넣어 송편을 나누어 먹었으며, 추수가 끝나 새로 난 곡식과 과일등 햇 음식을 마련하여 농사일로 바빴던 일가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놀이문화를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한가위는 한해의 풍성함을 감사하고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중추절

중국의 중추절은 춘절, 단오절과 더불어 3대 명절중 하나이다. 추석, 십오야라고 불리기도 하며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함께 월병을 나누어 먹고, 둥근달을 보며 서로간의 화합과 단결,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풍습은 원나라때 부터 전승되었다고 한다. 원나라에 항거하던 주원장이 삼엄한 경비를 피해 거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월병에 쪽지를 넣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훗날 이 날을 기리기 위해 공신들에게 매년 월병을 선물하던 것에서 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쪽지를 월병에 넣어 서로 나누어 먹으며 달맞이, 투얼예, 등 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다.

일본의 오봉

농경사회시절부터 수확철에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드리고, 그 해 수확한 여러가지 농산물들로 예를 갖춰 인사드리는 행사인 일본의 오봉은 우리나라의 한가위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일본은 대부분 집집마다 불단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으로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공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봉엔 일상적인 공양보다는 그 해 수확한 수확물들을 조금 더 차리지 만, 우리나라 한가위때처럼 대단하게 차리지 않는다.

오봉의 가장 큰 특징은 조상님들의 혼령이 자손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오고 가시는데 타 실 말과 소를 형상화 한 정령마라는 것에 있다. 오실때는 말(오이)을 타고 자손들을 빨리 만나러 오시고, 가실때는 소(가지)를 타고 천천히 가시길 바라는 의미로 오이와 가지에 나 무다리를 끼워 공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의 카다야완 페스티벌

자연에 대한 경의와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인간사회의 번영을 기원하는 축제인 카다야완 페스티벌은 필리핀의 정월이라 불리는 '다바오' 전역에서 매년 8월 셋째 주에 열리고 있다. 즐거움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카다야완 페스티벌에는 여러 부족들의 토속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댄스공연과 지역 주민들이 수공업으로 직접 제작한 민속 공예품, 필리핀의 풍성한 열대과일과 신선한 토착 농산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져 있다.

한,중,일 의 추석문화가 마을안의 축제, 조상님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카다야완'의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듯 삶을 찬양하고 즐기려는 필리핀인들의 삶의 문화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베트남의 쫑투

쫑투는 추석이라고 보다는 '어린이 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가족들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동네에서는 비용을 모아 작은 무대를 마련해 고연, 노래 등을 하고 마을의 대표자가 나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한다. 한 해의 곡물 등을 통해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춘다기 보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사자모양의 탈을 쓰고 북과 뿔가리를 치며 마을의 가게에 들러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는 거거리 같은 놀이를 하는 것으로 추석을 지내고 있다.

베트남 추석은 어른들이 일을 하는 동안 어린이들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달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거리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달 모양을 본따 만든 반 쫑투를 나눠주며 한 해의 덕담을 해주기도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가을 추수기에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인 농작물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4째주 목요일에 지내고 있다. 객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온가족들이 추수감사절주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실 음식들을 마련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낸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진 식탁앞에 앉아 오손도손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가장먼저 회상된다.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인 칠면조 요리를 비롯해 으깬감자와 샐러드, 각종파이와 각테일 포도주 등을 먹으며, 이러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신에 대한 감사의 행사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짧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한 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1621년 메사츄세츠 플리머스에서 이주자들이 첫 번째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인디언들과 함께 지낸 추수감사절을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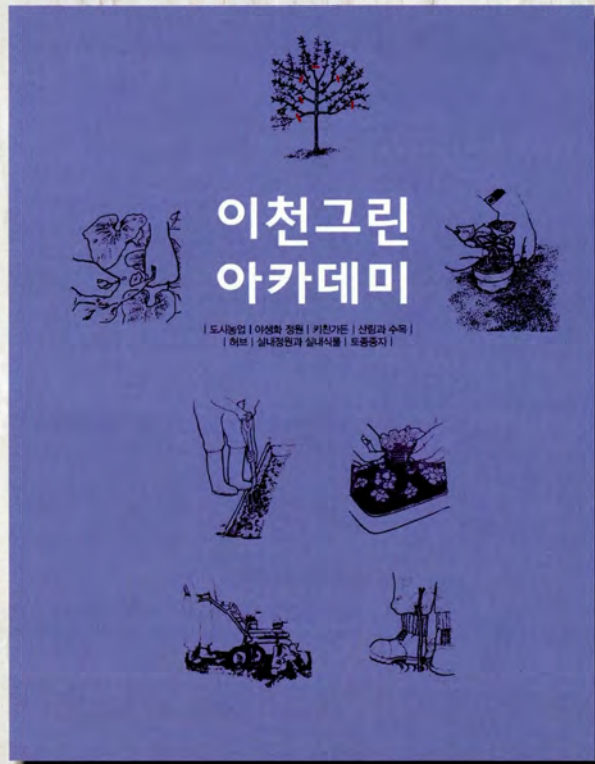


우리꽃 교육안내 EDUCATION

2014년 8월 이천그린아카데미 교육교재 출간

교육교재목차 <가든조아 교육 프로그램 기획팀> :

도시농업의 유형과 기능 / 야생화의 적응과 관리 / 텃밭 재배와 작목기술 정보 / 조경식물의 계절별 관리 / 국화 분재 재배 기술 / 녹색환경과 숲 활동 / 종자번식과 육묘 / 허브와 아로마테라피 Aroma Therapy / 실내조경의 노하우 / 친환경 유기 농업과 토종 종자 / 실내 식물의 종류와 디자인



01. 도시농업의 유형과 기능 (이천조아 조아)	9
02. 야생화의 적응과 관리 (이천조아 조아)	18
03. 텃밭 재배와 작목기술 정보 (이천조아 조아)	34
04. 조경식물의 계절별 관리 (이천조아 조아)	40
05. 국화 분재 재배 기술 (이천조아 조아)	80
06. 녹색환경과 숲 활동 (이천조아 조아)	92
07. 종자번식과 육묘 (이천조아 조아)	122
08. 허브와 아로마테라피 Aroma Therapy (이천조아 조아)	132
09. 실내조경의 노하우 (이천조아 조아)	144
10. 친환경 유기 농업과 토종 종자 (이천조아 조아)	156
11. 실내 식물의 종류와 디자인 (이천조아 조아)	172



우리꽃 교육안내

2015년 이천그린아카데미 6기 신청 상시가능(선착순 마감)

우리꽃 영농조합

연락처 : 031 - 634 - 7990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할인권을 제공
- 꽃씨증정

문의전화

Tel. 031-712-70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40% 할인권

[기간] 2014. 9. 1 ~ 2014. 9. 30

Gardenin

정원만 만의 이면 달 <가든인> 제1집에 실려있는 기사? 기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출판사 홈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는 테르메덴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가든인>은 테르메덴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Gardenin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무통장입금

예금주 : 농업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입금 후 반드시 주소를 변경을 알려주셔야 배송 가능합니다.)

문의 : 031-712-7009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적용인 무통장입금 시에 정해진 주소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업) 355-0030-2359-03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Gardenin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9. 1 ~ 2014. 9. 30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Gardenin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Gardenin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덜이 차오른다. 가자" 라는 노랫 가사처럼
9월이 오고 있다.

차오르는 달처럼
마음이 꽉 차는 가을엔이 되어가고 있가를
그림이 되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

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새벽별 보기운동과 하얀 눈금자들의
상향곡선일지라 해도 말이다.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rseed)그룹 대표 / 이학사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원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보(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항원회장

유봉수 설계그룹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

윤평성 상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직원기자 김지태 기자

황주리 기자

WorkingCow42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주)한국원예자재

검색창에 '조이가든' 을 검색해 보세요.

조이가든 shop



SPECIAL MACHINE PRODUCTS

01 BLOWER (브로워:흡입겸용)



▶ EBV260 : 250,000원

02 HEDGE TRIMMER (올타리 전정기)



▶ SLP600D : 320,000원



▶ SL700D : 320,000원

03 WATER PUMP (양수기)



▶ QGZ25-30N : 240,000원

04 BRUSH CUTTER ENGINE (예초기)



▶ CG430 견착식 : 280,000원



▶ BG430 배부식 : 280,000원

(주)한국원예자재 - 가드닝/원예전문 매장

미림가든센터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구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7-8

